

교사  
TH 915.19  
조각자  
1992  
C.2

碩士學位請求論文

09057697

# 珍島 단골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地 理 學 科

趙 鋌 奎

指導教授 張 保 雄

1992年 2月



# 珍島 단골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地 理 學 科

趙 鉉 奎

上記者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職 場	職 位	學 位	姓 名
審査委員長	全南大學校	副 教 授	文學碩士	曹勝鉉
審査委員	全南大學校	教 授	文學博士	張保雄 
審査委員	全南大學校	助 教 授	文學博士	李顯旭 

1992 年 2 月

## 目 次

抄錄 .....	iv
1. 序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方法 .....	6
2. 巫俗의 概念 .....	8
1). 巫俗의 性格 .....	8
2). 巫俗의 類型 .....	9
(1). 무당型 .....	9
(2). 단골型 .....	10
(3). 심방型 .....	12
(4). 명두型 .....	14
3). 巫俗의 地域的 特徵 .....	15
3. 珍島 단골판의 構造 .....	18
1). 단골의 分布 .....	18
2). 단골판의 境界 .....	23
3). 단골판의 規模 .....	26
4). 단골판의 變貌 .....	30
4. 단골의 通婚圈 .....	34
1). 同系와의 通婚圈 .....	35
2). 非系와의 通婚圈 .....	40
3). 通婚關係의 變化 .....	44
4). 通婚과 단골판과 關係 .....	47
5. 結論 .....	49
參考文獻 .....	52
ABSTRACT .....	54

表 目 次

표 1. 珍島 迷信業者의 分布 .....19

표 2. 단골의 分布 .....20

## 그림 目次

그림 1. 研究地域 .....	5
그림 2. 珍島 단골의 分布 .....	22
그림 3. 단골판의 境界圖 .....	24
그림 4. 同系와의 通婚圈 .....	39
그림 5. 非系와의 通婚圈 .....	43
그림 6. 珍島 단골의 婚姻關係 變化圖 .....	45
그림 7. 단골 巫系の 繼承構造 .....	47

# 珍島 단골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趙 鋌 奎

全南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地理學專攻

(指導教授 : 張 保 雄)

(抄 錄)

본 논문은 珍島 지방의 巫俗의 담당자인 단골에 관한 것이다. 珍島의 단골은 혈통에 의하여 司祭權이 世襲되고, 사제권에 의하여 일정지역(단골판)의 管轄權이 계승되고, 이것이 巫俗上 제도화되어 나타난다.

단골은 朝鮮時代 이래 천민으로 格下됨으로써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져 특수계층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同 集團이나 비슷한 신분의 계층과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심한 천대를 받아 오던 중 近代化와 함께 신분천대에서 탈출하려는 노력들이 촉진되어 後孫들이 단골업을 버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평등사상이 그들의 탈출행위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湖南地方 단골의 삶의 터전인 空間에 영향을 끼쳐 經濟的·社會的 활동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경제적 활동에 있어 독점적 관할권이 해체되었으며, 단골집에서 도부라는 이름의 現物 報酬를 받음, 가을로 받았으나 이러한 慣行이 소멸되어가고 있다. 근대화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어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단골집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동으로 인하여 단골조직의 해체와 신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단골의 독점적 管轄權과 通婚圈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하여 어떻게 變貌되어 가는가를 공간적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골의 독점적 관할권인 단골판은 後孫들의 단골업 기피현상으로 거의 소멸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단골판을 境界와 規模로서 과거의 영역을 파악하고 현재는 어떻게 變貌되었는가를 記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通婚에 관해서도 단골판과 관련되어 이 논문에서 다루었다. 단골은 심한 천대를 받아 結婚도 同類階層과 맺어졌는데, 근대화 이후 이러한 慣例가 깨뜨려져서 단골 家系가 아닌 집안과 通婚이 이루어졌다. 同系와의 通婚과 非系와의 通婚을 조사하여 通婚圈을 밝히고자 한다.

이 研究目的을 위하여 現地踏査를 통한 面談과 文獻調査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珍島의 단골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60年代에 있어서 종사자의 數의 增減이 폭이 컸으나, 70年代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감소의 원인은 단골이 賤民이어서 後孫들이 천시를 벗어나기 위해 단골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화와 서구사상의 도입으로 단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基督教 등의 전파와 巫俗을 迷信이라고 배척하여 단골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珍島의 단골은 珍島邑 7, 古郡面 3, 義新面 6, 臨淮面 2, 智山面 3, 鳥島面 1명이 분포하고 있다.

珍島의 단골판은 珍島邑 4, 古郡面 2, 義新面 5, 臨淮面 2, 智山面 4개 등 17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珍島의 단골판은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단골집과의 관계는 姓氏를 중심으로하여 형성된다. 단골과 姓氏와의 관계가 專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姓氏라도 단골이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珍島의 단골판은 自然部落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단골판의 規模는 自然部落의 數, 단골판의 面積, 단골집의 數로 측정된다. 단골판에 속하는 自然部落은 적게는 3부락에서, 많게는 14부락으로 그 폭의 차가 크다. 단골판의 面積은 넓이가 아닌 距離로서 나타냈다. 거리는 단골의 집에서 가장 먼 단골집과의

거리로 나타냈는데, 가장 작은 면적은 직선거리로 약 2km의 범위를 갖는 珍島 邑의 浦山里와 義新面 敦地里, 草四里의 판이고, 가장 먼 거리는 6km로 臨淮面 白洞의 판이다. 珍島 단골판의 평균거리는 약 3.4km이다. 단골집의 家口數는 50여호에서 600여호까지로 평균가구수는 240여호이다. 가구당 도부의 량은 1-4되이다.

珍島의 단골판은 단골들의 移動과 판의 賣買에 의하여 變貌되어 가고 있다. 단골판의 變貌는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천민의 대우를 받아오다, 서구사상이 유입되어 평등사상이 확산되자, 천민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근대화와 함께 촉진되어 도시로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巫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그 관심이 基督教을 비롯한 現代宗教에 흡수되어 단골의 종교적 基盤이 쇠퇴해져 단골의 종교사회적인 제도화가 균형을 잃어 경제 행위인 도부의 慣行이 소멸됨으로써 단골판이 크게 變貌되었다. 珍島의 단골판은 1970년대 초까지 판을 賣買하거나 賃貸를 하였다. 현재는 단골에 대한 관심이 약해져서 판이 소멸되고 있다.

珍島의 단골은 賤民 階級化 되어 사회생활에 있어 제약을 받았다. 結婚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 現在 60세 이상은 같은 巫系끼리 결혼을 하였다. 通婚은 지역사회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단골의 通婚圈을 보면, 珍島단골의 접촉 지역을 알 수 있다. 珍島의 단골은 珍島를 중심으로하여 海南, 靈岩, 新安, 木浦와 通婚圈이 형성되고 있다. 同系와의 通婚은 市場圈, 道路網, 行政圈과는 무관하게 단골간의 중매에 의하여 형성된다.

1960년대 이후 단골의 通婚에 있어 非系와의 通婚이 일어나고 있다. 非系와의 通婚圈은 아주 넓게 형성된다. 이는 賤民이라는 의식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 안되는 지역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다. 非系와의 通婚은 全南地方보다는 그 외 지역과 맺어지는데, 서울, 釜山, 大邱, 慶州, 濟州 등이 通婚 대상지역이다.

珍島의 단골은 현재 60세 이상은 동관과 결혼하고, 그 다음세대는 동관과



非系와의 通婚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후의 세대는 동관이라는 體制 자체가 파괴되어 그 畝員이 非系와 혼인관계를 맺을 것이다.

珍島의 단골판은 結婚에 의하여 계승되는 姑婦傳承型이다. 판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판을 상속받는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妻家에서 떼어준 판을 관리하는 경우의 2유형이 있다. 珍島의 17개판 중 14개 판이 父系繼承에 의한 경우이고, 2개의 판은 妻家에서 얻은 판이고, 나머지 1개는 스스로 판을 사서 유지하는 경우이다.

# 1. 序論

## 1). 研究目的

宗教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다. 즉 인간의 역사는 바로 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숨쉬고 생활하는 그 기반에는 '종교적'인 것이 擴散되어 恒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여러가지 문화형태 안에서, 즉 '종교적 체험', '종교적 현상', '종교', '종교심', '성스러움', '신적인 것', '토템', '타부'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 속에서 쉽사리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종교는 文化의 일부분이며, 실제로 어떤 文化圈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 종교는 문화집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 왔다.<sup>2)</sup>

原始宗教라 하여 原始社會에서만 橫行하다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은 아니다. 비록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變遷하더라도 일단 발생하였던 원시종교는 그 민족의 民俗信仰으로서 꾸준히 사회의 裏面을 占有하고 그 민족의 생활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E.T. Price는 문화형성의 초기에 인간이 환경을 이용하는 발달과정에 관한 것, 인간에 의해서 지표에 생긴 자연적 변화에 관한 것, 聚落의 형태, 언어와 같은 비물질 문화, 문화의 起原과 傳播, 문화의 進化 등과 함께 종교도 文化地理學의 한 주제로 보았다.<sup>4)</sup> 문화지리학은 인류문화의 空間分布와 空間的關係를 이해하기 위하여 물질적 문화현상과 비물질적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학

1) 尹周炳, 1986, 종교심리학, 서광사, p.11.

2) Terry G. Jordan, Lester Rowntree, 1986, The Human Mosaic, Harper & Row, p.170.

3) 朴桂弘, 1971, "近世 巫覡의 社會的 機能에 對하여", 韓國民俗學 第4集, 民俗學會, p.1.

4) 盧道陽, 張保雄, 1976, "歷史·文化地理學", 地理學 第13號, 大韓地理學會, p.38.

문<sup>5)</sup>으로서 T.G. Jordan과 L. Rowntree는 문화지리학에서 종교연구는 종교의 文化地域, 종교의 擴散, 종교의 生態, 종교에서의 文化統合, 文化景觀의 다섯 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sup>6)</sup> 宗教地理學은 개인의 내적인 종교경험이나 신앙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관찰할 수 있는 조직화되어진 종교체계와 문화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종교에는 두가지의 주요유형, 즉 原始宗教와 高等宗教로서 이것들은 다시 여러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본 연구는 원시종교의 하나인 巫俗에 관하여 地理學的 側面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巫俗에 관한 연구는 民俗學, 宗教學, 人類學, 國文學, 心理學, 音樂學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되어지고 있으나 地理學에서의 연구는 全無한 상태이다. 한국의 巫俗은 지역에 따라 그 특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地理學에서 접근할 수 있는 根據를 제공해 주고 있다. 韓國 巫俗은 巫俗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名稱과 무당이 되는 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名稱에 있어서는 中部地方 以北과 嶺南에 거주하는 자를 무당, 湖南에 거주하는 자를 단골<sup>8)</sup>, 濟州道에서는 심방이라 부르고, 무당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무당型, 단골型, 심방型, 명두型 등으로 구분된다.

湖南의 단골은 血統에 의하여 司祭權<sup>9)</sup>이 世襲되고, 사제권에 의하여 일정지역(단골판) 管轄權의 繼承이 있고, 이것이 巫俗上 制度化 되고 降神體驗이 없어 靈力이 없으며, 그래서 구체적인 神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自家의 神壇이 없으며, 신을 향해 정통적인 곳을 주관하는 司祭를 말한다.”

5) 盧道陽, 張保雄, 1976, 前掲書, p.36.

6) Jordan, T.G., Rowntree, L., 1986, op.cit., pp. 170 - 207.

7) David E. Sopher, 1967, geography of religions,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p.1.

8) 당골, 당골내 등으로 불리워짐.

9) 巫 儀禮를 主管할 수 있는 權利.

巫堂은 祭政一致의 時代에는 부족 내지 부족연맹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였으나, 三國時代에 그 세나라가 국가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政治的 權力을 상실하여 司祭的 機能 만이 남아, 무당은 나라무당과 보통무당으로 양분되어 나라무당은 절대적인 왕권에 부속되어 국가관리가 되고 보통의 무당은 민중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존속해 오다 朝鮮에 이르러 유교를 통치이념으로하여 巫를 專業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격하시킴으로써<sup>10)</sup>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굳어져서 이들이 특수계층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자기들의 집단이나 자기들과 비슷한 신분의 계층과의 교류로 맺어졌다. 이러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단골은 심한 천대를 받아오던 중 근대화와 함께 신분천대에서 탈출하려는 노력들이 촉진되어 후손들이 단골업을 버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평등사상이 그들의 탈출행위를 북돋아 주고 있다.<sup>11)</sup> 또한 근대화와 평등사상의 확산으로 단골에 대한 차별의식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結婚 등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적 상황은 湖南地方 단골의 삶의 터전인 공간에 영향을 끼쳐 단골집단의 經濟的 · 社會的 활동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독점적 管轄權이 해체되었으며, 단골집에서 도부라는 이름의 現物報酬를 봄 · 가을에 받았으나 이러한 慣行이 상당히 소멸되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어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도시로의 이동이 빈번하였고, 단골집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동으로 인하여 단골조직의 해체와 신분의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社會 · 經濟的인 변화는 단골들의 數와 단골판의 規模, 독점적 관계에 있

10) 金泰坤, 1982, 韓國民俗大觀 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208.

11) 趙興胤, 1987, 한국의 기층문화-한국무속의 세계와 성격-, 한길사, p. 166.

12) 崔吉城, 1969, “巫系傳承考-全南 단골을 中心으로-”, 韓國民俗學 創刊號, 民俗學會, p.108.

어서 변화를 주었다.

사회계층화의 본보기인 通婚에 있어서 단골은 階級內婚을 주로 하였다. 階級內婚은 일반적으로 계급적 우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 특권을 계속 향유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낮은 계급과의 通婚을 막기위한 것<sup>13)</sup>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서의 계급내혼은 이와는 달리 賤民이라는 계급의식 때문에 上位 계급의 일반인과의 통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단골 內의 通婚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은 사회의 변화에 의하여 많이 소멸되었지만 珍島地方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관념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非系와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다. 非系와의 결혼은 단골신분을 속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결혼 후의 생활의 터전도 全羅道 사람이 적은 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화 이후 巫俗의 담당자인 珍島 단골의 공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단골의 數의 增減과 독점적 管轄圈의 해체과정을 境界, 規模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해체과정으로 단골판이 어떻게 變貌되었는가를 보고,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통혼관계에 있어서 階級內婚(同系)<sup>14)</sup>과 階級外婚(非系)<sup>15)</sup>의 관계를 살펴 보아 각각의 通婚圈을 비교해 보고 이 通婚圈이 단골판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를 究明하고자 한다.

단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단골의 조직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民俗은 민간의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근대화 과정이 비교적 늦은 주변부 지역에서 많이 保存·傳承되고 있다. 이러한

13) 崔在律, 1975, “農村通婚圈의 性格과 變化 - 鳩林里의 婚入을 中心으로 - 湖南文化研究 제7집,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p. 33.

14) 이는 같은 단골계층과의 결혼을 의미함.

15) 비단골계층과의 결혼을 의미함.

점에서 한반도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民間에 전하는 風俗이 많이 殘存하여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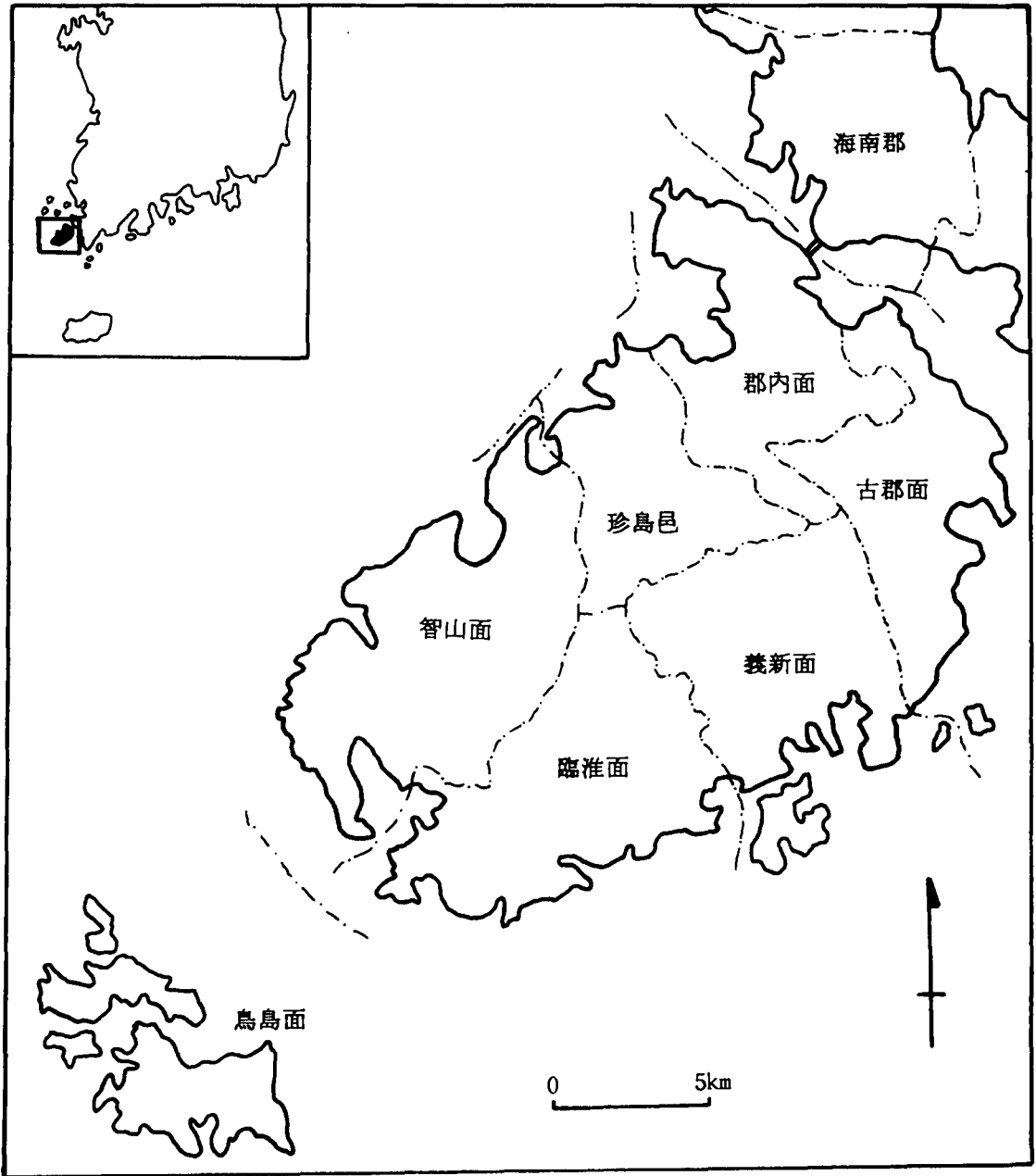


그림 1. 研究地域

는 珍島를 택하였다. 珍島는 민속에 있어서 전통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것을 繼承 · 發展시키고 있어 강강수월래, 남도 들노래, 다시래기, 진도 씻김굿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巫俗에 있어서도 珍島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종사자와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研究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地域이다.

## 2). 研究方法

本 研究는 珍島에서 믿어지는 巫俗에 관한 것으로 巫俗을 담당하는 司祭인 단골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단골의 삶에서 地理學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골판과 通婚圈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現地調査와 文獻調査를 竝行하였다. 珍島郡의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단골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계조사자료가 15년 전의 통계자료 밖에 없어서 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당시의 分布를 파악하였다. 그 이후의 자료는 現地踏査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現地調査는 1990년 9월 3일 ~ 7일, 9월 24일 ~ 29일, 1991년 8월 24일, 9월 4일 ~ 8일, 10월 11 ~ 13일의 기간에 행하였다. 현지조사는 珍島의 郷土史家인 朴柱彦氏<sup>16)</sup>의 도움으로 단골의 소재를 파악하여 단골을 방문하여 단골과의 面談으로 행해졌다. 이 면담에서 과거의 단골들의 分布 現況, 단골들의 營業地域, 通婚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藝鄉珍島, 珍島巫俗 現地調査, 珍島郡의 文化遺蹟 등 기존의 연구자료를 많이 참고하였다. 그리고 朴柱彦氏와 단골 주변의 村老와의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골판의 규모와 경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2만5천, 1/5만 지형도를 이용하

---

16) 藝鄉珍島 編輯長, 珍島郡 珍島邑 城內里에 거주.

였다. 文獻은 珍島郡 통계연보와 珍島 文化院에서 발행한 단골에 관한 문헌과 기존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다.

본론에서 단골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단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골들이 자기의 신분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현지 면담의 어려움은 단골이 천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인데, 특히 통혼관계에 있어서 면담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여 진도의 모든 단골에 대한 조사가 되지 못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단골들과의 신뢰를 쌓아 더욱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2. 巫俗의 概念

### 1). 巫俗의 性格

巫俗은 巫堂<sup>17)</sup>을 주축으로 하여 民間에서 전승되고 있는 宗教的 現象<sup>18)</sup>으로, 巫堂이라는 司祭者가 信徒들을 위해 祭儀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우리의 土俗宗教<sup>19)</sup>로서 이미 사라져 버린 古代宗教도 아니요, 未開民族의 단순한 原始宗教도 아니다. 이것은 고대종교의 殘留繼承된 것이요, 한국의 현대문화사회 속에서도 民間信仰의 형태로 살아 남아 있는 역사적 종교 현상<sup>20)</sup>이다.

巫俗을 담당하는 무당이란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과의 중간에 서서 특수한 방법의 의례 집행을 통하여 兩者를 매개하는 職能者<sup>21)</sup>로 司祭, 治病者, 豫言者의 技能 외에 전통문화계승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sup>22)</sup>

한국의 巫俗은 多神의 宗教이다. 天 · 地 · 水 등에 관련되어 巨視的인 宇宙論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神이 있는가 하면, 山 · 木 · 石 · 짐승 등의 애니미즘의 神이며, 呪物崇拜의 대상이 됨직한 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神들이 있다. 佛敎와 道敎的인 성격이 강한 地緣性을 지닌 神들과 병존하고 있다. 外國人<sup>23)</sup>이 神格화된 神體가 內國人이 신격화된 신체와 공존한다.<sup>24)</sup> 한국

17) 巫, 巫覡, 박수, 단골, 당골, 심방, 테주, 동자 등으로 불림

18) 金泰坤, 1983,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 212.

19) 黃纒詩, 1988, 韓國人の 굿과 무당, 文音社, p. 11.

20) 柳東植, 1975, 韓國 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 出版部, p. 22.

21) 玄容駿,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p. 22.

22) 趙興胤, 1987, 한국의 기층문화-한국무속의 세계와 성격-, 한길사, p. 183.

23) 古代의 中國 등의 人物.

24) 金烈圭, 1974,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p. 4.

巫俗의 神靈은 한국에 관련된 모든 자연과 인물을 포괄하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오늘날까지 이만큼 이루어준 넓은 의미의 祖上의 성격을 가진다.<sup>25)</sup>

巫俗의 성격은 첫째, 自然主義的이고 現世中心的이다. 巫俗에서는 오직 자연 질서에 따른 生者必滅思想과 現世에서의 가족 내지 부락공동체의 求福과 除災를 위한 현세중심적 가치관과 道具的 神觀이 있을 뿐이다. 둘째, 平和的이고 人間中心的이다. 巫俗에서는 善 · 惡, 인간과 신, 苦 · 樂 같은 양극적 가치들 사이의 갈등이나 투쟁 대립 보다도 조화와 화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대화와 놀이 · 歌舞 · 飲酒 등을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해 神과 인간이 화해를 이룸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 現實中心的이고 實用主義的이다. 巫俗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하고 그 현실에 적응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찾는다. 이러한 적응력 때문에 巫俗은 강한 문화적 생명력을 지니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6)</sup>

## 2). 巫俗의 類型

### (1). 무당型

神病體驗을 겪은 후에 降神祭인 내림굿<sup>27)</sup>을 통하여 몸주신<sup>28)</sup>을 받아서 되는 무당과 박수 등 降神巫가 이 類型이다.<sup>29)</sup> 무당型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느 시기에 신체가 약해져서 심신이 괴로운 상태로 되면 때때로 꿈에 神象을 본다는 幻覺 · 幻視 · 幻聽 등이 있어 보통의 病과는 달라 신에 의한 巫病임을

25) 趙興胤, 1987, 前掲書, p.188.

26) 金仁會, 1987,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pp.210 - 211.

27) 신내림을 확인하는 굿.

28) 무당에게 직접 내려진 신.

29) 金泰坤, 1981,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p.143.

自他가 믿게 됨과 동시에 巫女에게 점을 쳐서 巫病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 巫病임을 알게 되면 수호신을 맞이해서(入巫祭) 神堂을 꾸미고 巫業을 함으로써 巫病이 치료되는 것이다.<sup>30)</sup>

무당型은 신병체험을 겪게 되면 주위의 유명한 무당에게 降神祭(入巫祭)를 의뢰하여 무당이 된다. 이때 祭儀를 집행한 무당이 신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이를 신딸傳承型이라 한다. 신딸은 신어머니로부터 巫儀一切를 전수받아 무당이 된다.

이러한 斷切的인 전승유형은 父系傳承이 아니고 또한 親子關係의 혈연관계나 夫婦關係 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神母와 신딸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非血緣的인 母系的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절적인 전승유형에서는 엄격한 학습과정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타시(ecstasy)巫로서 神靈을 빙자하는 비중이 크다.<sup>31)</sup>

무당型의 傍系로 菩薩, 神將할멈, 七星할멈으로 불리는 선무당류가 있다.

## (2). 단골型

단골型은 血統에 따라 司祭權이 세습되는 世襲巫로 湖南地方의 세습무 단골, 嶺南地方의 세습무 무당이 여기에 속한다. 단골型은 단골판이라는 일정지역의 管轄權을 가지고 있다. 단골型은 혈통에 의하여 사제권이 세습되기 때문에 降神體驗이 없어 靈力이 없으며, 그리하여 구체적인 神觀이 확립되지 않아 自家의 神壇이 없으며, 神을 향하여 일방적인 歌舞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로 사제권에 의하여 일정지역(단골판) 管轄權의 계승에 의하여 무당이 되는 類型이다. 단골은 각각 巫俗上으로 독립된 관할구역인 단골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골판 안의 住民 信徒 전체와 단일적 결합조직을 갖고 이 단위지역

30) 崔吉城, 1978, 韓國巫俗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p.15.

31) 崔吉城, 1969, 前掲書, p.111.

(단골판)의 공공성을 띤 단독의 巫로 존재하면서 단골판을 포함한 일체의 巫權限이 세습 계승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32)</sup> 단골 組織은 단골의 巫俗的 영역인 단골판을 기반으로 주민 신도 전체와 單一的 결합조직을 갖는, 단골 상호간의 橫的 分割體系의 制度的 조직화 현상이 보인다.<sup>33)</sup> 단골의 학습과정을 보면, 우선 단골이 되는 여자에게는 婚姻하기 전 巫業의 바탕이 되는 歌舞, 藝能의 자질이 자연적으로 습득된다. 다음, 그녀는 혼인하고 나서 媼母에게서 巫歌를 비롯한 巫業에 필요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전수받는다. 이와는 달리 혼인을 하기 전부터 巫歌의 歌詞를 전수 받다가, 혼인 후에 媼母의 굿판을 따라 다니며 巫歌의 韻律 · 巫舞 · 굿의 節次 등을 現場과 직접적 傳受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

단골의 媼母의 巫系를 계승한다는 점과 여자가 혼인을 하여 父系出系集團의 일원이 되는 것이 契機가 되어 단골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단골의 繼承方式을 父家系內 姑婦繼承이라 한다.<sup>34)</sup> 한편 父系繼承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여 사제권은 父系를 따라 세습되고 女巫인 단골은 姑婦로 이어지면서 그 家系가 가진 사제권의 代行者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단골이 媼家에 소속되어 巫業에 종사할 때 대개 남편이 巫儀의 伴奏를 한다. 巫儀 반주자를 鼓人이라하며 고인의 직업은 父系를 따라 계승된다.<sup>35)</sup>

단골은 단골판 내의 巫儀式을 독점하고 신도들과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관계를 갖는다. 한 단골이 관할하는 단골판은 다른 단골들에게 排他的이며, 賣買와 傳賣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단골판의 단위는 마을이라는 地緣集團이나 同一姓氏 集團이다. 이 단골판의 궁극적인 소유권도 父系로 相續되며 女巫

32) 金泰坤, 1981,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p. 263.

33) 金泰坤, 1981, 前揭書, p. 265.

34) 張壽根, 1983, “鳥島地區의 人類學的 踏查報告”, 自然實態綜合調查報告書3, 自然保護協會, p. 171.

35) 李鐘哲, 趙慶萬, 1987, 珍島의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學博物館, p. 255.

인 단골은 단골판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巫儀式을 할 따름이다.<sup>36)</sup>

단골판 내의 信徒들은 宗教的으로 의존하고 단골의 家系는 신도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우선 단골은 巫儀를 해주고 마령이라는 現物 또는 現金을 받는다. 그러나 마령보다도 더 규모가 큰 것은 해마다 1-2회씩 받는 도부라는 이름의 現物 報酬이다. 과거에는 봄철 보리 수확기에 봄도부, 가을철 벼 수확기에 가을도부를 받았으나, 현재는 도부의 慣行이 많이 소멸되어가고 있다.<sup>37)</sup>

도부를 받을 때가 되면 단골은 간단한 선물을 信徒의 가정에 돌린다. 과거에는 떡, 엿 등의 물품이었으나 현재는 성냥 1-2갑이 단골집에 돌리는 선물이다. 이 선물증여 행위는 親交를 표시하는 儀禮的, 象徵的 贈與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儀禮的, 象徵的 贈與 뒤에 도부를 받는 경제적 행위가 따르는 것이다.<sup>38)</sup>

### (3). 심방型

심방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巫儀를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병을 치료하고 災殃을 除去하고, 점을 쳐서 예언하고, 託宣 · 靈媒<sup>39)</sup>를 하는 등, 특수한 능력을 가진 者다. 이런 능력의 소유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까지는 일정한 조건과 成巫過程이 있는 것 임은 말할 것도 없다.<sup>40)</sup> 玄容駿에 의하면<sup>41)</sup> 심방의 成巫動機는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세습으로 入巫한 경우로 부모가 심방일 때 그 자식이 부모의 巫業을 계승해서 심방이 되는 경우로

36) 李鐘哲, 趙慶萬, 1987, 前掲書, p. 255.

37) 李鐘哲, 趙慶萬, 1987, 前掲書, p. 255.

38) 李鐘哲, 趙慶萬, 1987, 前掲書, p. 255.

39) 神의 소리를 전달하는 媒體.

40) 玄容駿,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p. 87.

41) 玄容駿, 1986, 前掲書, pp. 88-110.

張壽根의 조사보고에 의하면<sup>42)</sup> 가장 많은 경우이다. 巫業의 계승은 부모 또는 그 어느 한쪽이 심방인 경우, 그 자식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계승하는데, 그 계승이 父系적이라든가, 母系的이라든가 하는 규칙은 말하기 어렵다. 둘째로 심방과의 혼인에 의하여 入巫한 경우로 심방은 사회적으로 賤視를 받기때문에 그들과 비슷한 階層과 혼인관계를 맺는데 巫系 집안이 아닌 집안과 혼인한 후 非系가 심방이 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셋째로 생활수단으로 入巫하는 경우는 非系가 경제적인 이유로 심방을 따라 다니다 技能을 익혀 심방이 되는 경우이다. 넷째로 病 때문에 入巫하는 경우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무당이 되어야 병이 낫는다는 占에 의하여 심방이 되는 경우이다. 다섯째로 巫具(멩두)를 주워서 入巫하는 경우로 멩두를 우연히 줌의 일도 있지만, 흔히 줌기전에 心理的 또는 肉體的 變異가 일어나서 멩두를 줌게 되고, 그 후에 병이 생기므로 그것을 모아서 巫業을 시작하면 병이 낫으므로 심방이 되는 경우이다.

玄容駿은 둘째, 셋째를 自意入巫型, 첫째, 넷째, 다섯째를 神意入巫型으로 분류하였으나, 본인은 첫째, 둘째, 셋째를 世襲的 入巫型, 넷째, 다섯째를 神的 入巫型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로 심방이 되면은 신들의 계보, 신화, 祝禱詞, 악기의 반주법, 무가의 唱法, 巫舞, 여러가지 巫儀의 祭次와 방식, 巫占法과 그 判讀法, 神靈의 의사를 대변하는 요령 등, 여러가지 巫儀의 기술적 부면과 신앙의 체계에 대한 지식<sup>43)</sup>을 익혀야 하는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하다가 악기를 연주하는 등 어느정도 숙달이 되면 심방이 되는데 이 때 신굿이라는 入巫儀禮를 해야 한다.

42) 張壽根, 1973, 韓國의民間信仰, 金花舍, 東京, p.68, 玄容駿, 1986, 前掲書, p.88에서 재인용.

43) 玄容駿, 1986, 前掲書, p.111.

신국은 일생에 3번 행해지는데, 첫번째는 소무(小巫)가 심방으로 독립할 때에 선생인 심방이 수심방이 되어 해주는 것이고, '하신충'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두번째는 하신충이 된 후, 여러해 지나서 선생인 심방이나 선배 심방을 빌어서 하고, '중신충'이라는 호칭을 얻고, 세번째는 선배 심방을 빌어서 하는데 '상신충'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고 최고위의 심방이 된 셈이 된다.<sup>44)</sup>

#### (4). 명두형

인간 死靈의 降神體験을 통해서 된 巫인데, 체험된 사령은 혈연관계가 있는 어린아이가 죽은 兒靈으로 대개 7세 미만의 死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6세 전후의 死靈도 있다. 명두형의 특징은 몸에 실린 死靈을 神壇에 모시고, 필요할 때 이 死靈을 불러 靈界와 미래사를 탐지시켜 占을 치는 것이다. 女兒의 死靈을 「명두」, 男兒의 死靈을 「동자」 또는 「태주」라하며 이 死靈이 실린 巫도 각각 「명두」, 「동자」, 또는 「태주」라 부른다. 이와같은 명두형의 巫는 南部地域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中部와 北部地域에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부지역 중에서도 湖南地域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sup>45)</sup>

호남지역에서 명두형은 단골형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단골형은 靈力이 없어 명두가 점을 쳐 굿하는 날짜를 잡아 주면 그 날짜에 굿을 하였다. 이와같은 二元的 分化體系로 명두형의 巫는 원래 死靈을 불러 占을 치는 것이 전문인데, 近者에 이르러 巫의 祭儀 영역까지 침범하여 正統巫와 명두형 巫 간의 대립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명두형 巫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死兒靈의 降神으로 死兒靈의 招請術에 의한 占福의 전문 점쟁이로 歌舞에 의한 정통 굿의 주관 불능인 불완전 무당을 칭한다.

44) 玄容駿, 1986, 前掲書, p.112-113.

45) 金泰坤, 1981, 前掲書, p.146 - 147.

### 3). 巫俗의 地域的 特徵

巫의 지역적 특징은 成巫動機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中部地方(京畿道 以北)과 北部地域에는 神病體驗을 통하여 내림굿을 받은 降神巫가 전적으로 우세하고, 南部地方(嶺東地方 포함)은 巫俗의 사제권이 세습되는 世襲巫가 우세하나, 降神巫 계통인 명두型이 湖南地方을 중심으로 약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濟州道는 降神巫와 世襲巫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巫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巫의 祭儀 面에서 中·北部의 降神巫는 祭儀에서 巫와 神과의 一元化를 하는데, 南部의 世襲巫는 神을 향하여 일방적인 歌舞로 神과 巫의 대치된 二元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46)</sup>

巫의 神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中·北部의 降神巫의 경우에는 내림굿을 받으면서 내린 神을 모시게 되므로 神觀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구체적인 神을 그린 巫神圖 등을 모시는 방을 만들어 神壇을 설치한다. 降神巫는 이 神壇에 절을 하며 기도한다. 湖南과 嶺南의 世襲巫의 경우는 司祭權이 세습에 의하여 계승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神觀이 없어 神壇이 없다. 그래서 世襲巫는 기능적인 歌舞로서 神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다.

巫系傳承에 있어서는 中·北部의 降神巫의 경우는 유명한 무당이 神病에 걸린 사람을 내림굿을 통하여 전승되는데 내림굿을 주재하는 무당을 신어머니, 내림굿을 받는 무당을 신딸이라 한다. 이를 母女傳承型 또는 신딸傳承型이라 한다. 湖南과 嶺南의 世襲巫는 단골판이라는 管轄權이 존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巫系가 전승되기 때문에 父系傳承型이라 하지만, 巫儀의 대부분을 여자가 담당하므로 姑婦傳承型이라 한다.

46) 김태곤, 1881, 전계서, p.147.



巫儀를 집행할 때 巫服은 中部와 北部의 降神巫는 각 곳거리마다 個個 神의 神服을 상징하는 巫服이 따로 있어 巫 하나가 12종 내지 20종의 巫服을 굿을 할 때 입는다. 그러나 南部地方의 世襲巫의 경우는 巫服이 2-3종 정도이며, 湖南地方의 단골의 경우는 巫服이 퇴화되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降神巫에게는 降神의 靈力을 얻기 위해 祭儀에서 자신이 神格化해야 되기 때문에 神服으로서의 巫服이 발달하게 된 것이며, 世襲巫의 경우에는 靈力을 所持하거나 신격화할 필요성이 없이 祭儀를 주관하는 일방적인 司祭였기 때문에 神服으로서의 巫服이 소용되지 않게 되자, 巫服은 점차 儀禮服의 機能으로 전락해서 淘汰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sup>47)</sup>

굿의 歌舞에서 보아도 中部와 北部의 降神巫는 장구, 징, 팽과리 등의 타악기 위주로 歌舞의 가락과 속도가 빠르며, 南部의 世襲巫는 위의 타악기 외에 피리, 젓대, 호적 등의 吸奏樂器와 해금, 가야금, 아쟁 등의 현악기가 반주되어 歌舞의 가락과 속도가 완만한 차이점이 발견된다.<sup>48)</sup>

巫의 性別을 놓고 南部地域과 北部地域을 비교해 볼 때, 南部地域은 男巫가 우세하고 北部地域은 女巫가 우세한 실정이다. 南部의 世襲巫, 즉 濟州道의 경우는 심방이 巫의 주류가 되고, 湖南, 嶺南의 경우도 巫의 사제권이 男性 위주로 계승되면서 男性이 祭儀 진행 전체를 관할하고 굿의 마지막 순서인 거리풀이 과정에 司祭로서 직접 등장한다. 그러나 中部, 北部地域 降神巫의 경우는 巫의 수적인 면이나 祭儀 주도권에 있어서 여성이 절대적이다. 간혹 남무인 박수가 있으나 숫적인 면에서 아주 극소한 편이다.<sup>49)</sup>

南部의 世襲巫의 祭儀에는 神의 下降路를 상징하는 神竿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祭場에 설치한다. 中部와 北部地域 降神巫의 祭儀에는 神竿이 사용되지 않

47) 金泰坤, 1981, 前掲書, p. 148.

48) 金泰坤, 1981, 前掲書, p. 148.

49) 金泰坤, 1981, 前掲書, p. 149.

거나 簡素化된 상태다. 그 이유는 降神巫에게는 降神이 자유자재이므로 굳이 聖域을 표시하는 神의 下降路인 神竿을 祭場에 세울 필요성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점차 淘汰된 것으로 보이며, 世襲巫에게는 神의 降神이 어려워서 인위적으로 聖域을 표시하는 神의 下降路를 상징하는 대형의 神竿이 發展되었거나 아니면 殘存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sup>50)</sup>

---

50) 金泰坤, 1981, 前掲書, p.147.

### 3. 珍島 단골판의 構造

#### 1). 단골의 分布

珍島는 한반도의 남서단부의 고립된 섬으로 근대화의 물결이 늦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문화들이 그 原形을 유지하고 있다. 표1에 나타난 것과 같이 珍島郡의 통계연보에 迷信業者 분포라는 항목을 지정하여 자료화한 사실로 보아 珍島郡은 일반 서민들의 다수가 일반적으로 迷信이라고 하는 표1의 내용들을 믿었고, 이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표1에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년도가 지나면서 數에 있어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쟁이의 숫자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단골들이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단골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하거나 後孫이 단골업을 포기하는 경우와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 뿐 만 아니라 단골들이 하던 곳까지 배워서 占과 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占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골보다는 점장이들에게서 靈的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점쟁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화와 지식의 발달로 단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기독교 등의 전파와 새마을 운동의 擴散으로 巫俗을 迷信이라고 배척하여 단골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이다.

단골의 수는 표2와 같이 60년대 중반에는 100여명이 넘었으나, 그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76년에 41명으로 각 邑·面에 고루 분포를 하고 있으나, 1990년의 경우 珍島邑 城洞里, 사정리(2인), 浦山里, 西外里, 東外里, 城內里(數人)에 7명, 義新面 敦地里(2인), 원두리, 원두리(數人), 草四里, 草中里에 6명, 智山面은 巨濟里, 금노리, 五柳里에 3명, 古郡面은 五日市, 五日市(數人), 五山里에 3명, 臨淮面은 白洞里, 連洞里에 2명, 鳥島面은 옥동리에

1명 등으로 총 22명으로 이 중 14명이 珍島邑과 義新面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

표 1. 珍島 迷信業者의 分布

구분 년도	무 당		점쟁이		풍 수		사 주		독 경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2	39	52	1	27	3	-	4	-	-	-
1963	31	44	1	35	7	-	3	1	23	4
1964	30	52	2	48	8	-	4	-	40	7
1965	38	66	-	54	17	-	7	3	41	7
1966	33	74	1	47	16	1	3	2	41	7
1967	22	65	2	52	11	-	8	5	26	3
1968	24	66	1	40	11	-	10	-	24	2
1969	37	51	1	34	10	-	5	-	29	-
1970	37	42	7	20	19	-	1	-	12	-
1971	26	51	-	55	17	9	9	1	23	1
1972	17	41	2	46	13	9	7	-	15	1
1973	22	49	-	46	12	-	8	-	21	5
1974	18	31	-	39	9	-	7	-	18	4
1975	9	33	3	65	10	-	3	-	15	6
1976	9	32	3	64	9	-	3	-	15	6

자료 : 진도군 통계연보  
1976년 이후는 통계자료 없음.

이고 있고, 郡內面에는 현재 단골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그림 2.)

珍島에서의 단골의 분포는 珍島邑과 義新面に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

표 2. 단골의 分布

邑·面 년도	珍 島		郡 內		古 郡		義 新		臨 淮		智 山		鳥 島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4	2	8	1	6	5	8	10	10			3	9	9	11	82
1965	2	10	5	11	4	7	7	10	8	11	3	7	9	10	104
1966	3	10	5	11	4	6	8	13		15	3	7	10	12	107
1967															87
1968	2	7	5	20	1	6	4	8	1	9	3	6	8	10	90
1969	3	6	5	6	-	5	4	8	16	12	3	6	6	8	88
1970	3	6	6	7	-	5	3	1	16	12	3	6	6	5	79
1971	3	7	1	9	-	6	4	8	5	5	7	11	6	5	77
1972															58
1973	3	8	2	4	-	3	5	7	4	12	3	7	5	8	71
1974	3	4	2	4	-	3	3	5	4	5	3	5	3	5	49
1975	1	1	-	7	1	5	2	8	-	2	2	8	3	2	42
1976	1	1	-	7	1	5	2	8	-	2	2	7	3	2	41
1990*	2	5	-	-	1	2	1	5	1	1	1	2	-	1	22

자료 : 진도군 통계연보

\* 1990년은 필자의 조사에 의함.

다. 이러한 分布의 원인은 단골판의 해체에 있다. 단골판의 해체로 독점적인 管轄權이 파괴됨으로써 영업지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없어져 삶의 질적인 측면과 곳의 의뢰의 다양함 때문에 珍島邑으로 이사를 하므로서 珍島邑에 집중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단골판의 賣買에 의하여 변하는데 최근의 변화는 臨淮面 白洞에서 珍島邑으로, 智山面 仁智里에서 珍島邑으로, 古郡面 香洞에서 古郡面 오일시로 이사를 하여 이곳에 거주하면서 곳 儀禮를 행하고 있다.

현재 珍島에는 降神巫 系統의 점쟁이들이 珍島邑에 9명, 郡內面에 5명, 古郡面에 4명, 義新面에 8명, 臨淮面에 3명, 智山面에 3명 등 32명이 있다.

珍島에서는 예전에는 곳은 世襲巫들 즉 단골들이 하고, 降神巫 즉 점쟁이는 占을 통하여 神말을 해주면서 어떤 경우 곳의 필요성과 날짜를 받아 주던 것이 이들 상호간의 관계 형태였다. 언제부턴가 이 상호관계가 깨어지고 점쟁이들이 곳까지도 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世襲巫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모든 단골들은 점쟁이들에게 反感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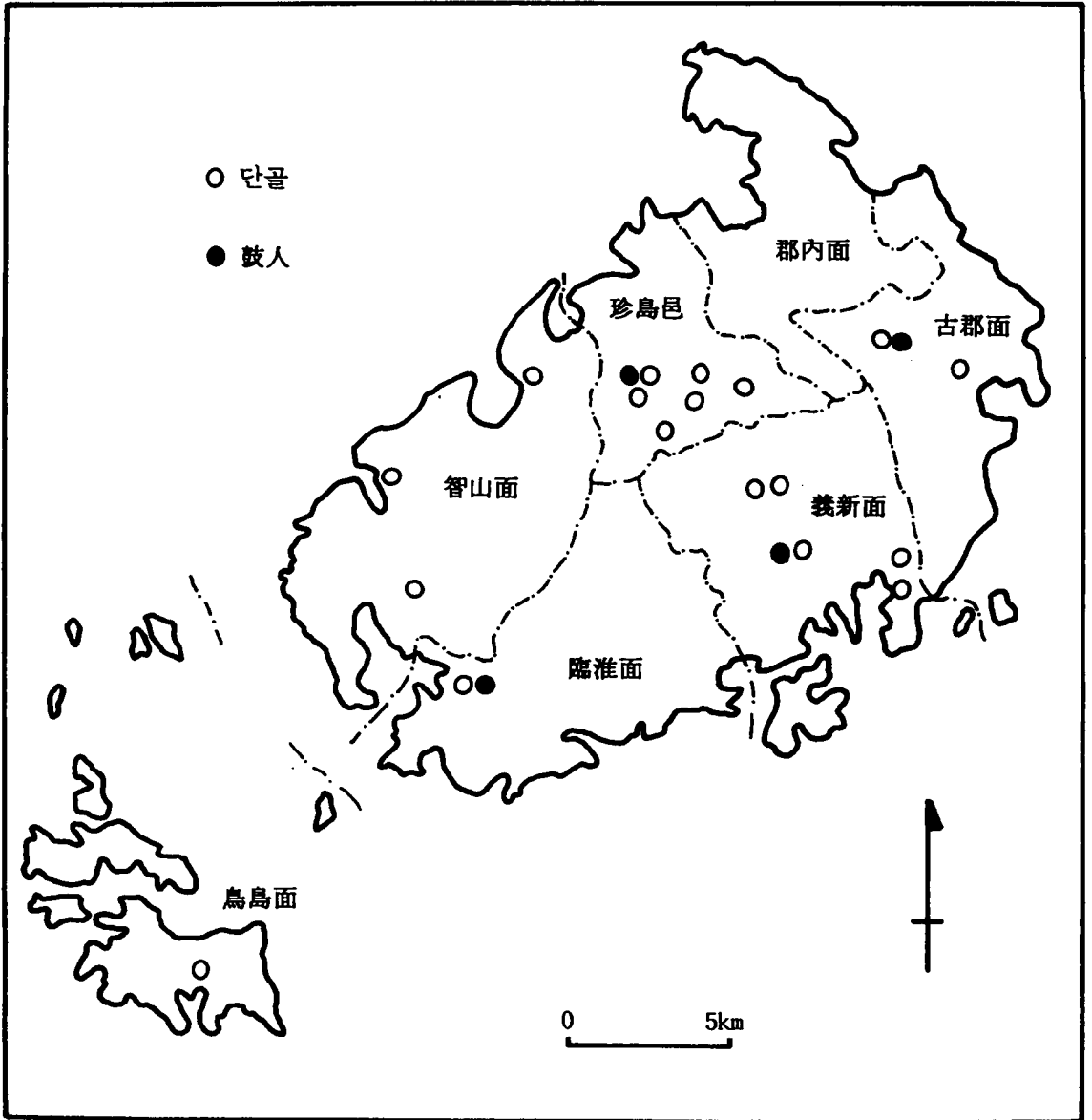


그림 2. 珍島 단골의 分布 (1990년)

## (2). 단골판의 境界

珍島의 단골판은 현재는 거의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1975년을 기준으로 단골판의 해체 前의 상태를 중심으로 境界를 나누고자 한다. 단골판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自然部落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장애물과 시간적 거리에 의하여 나누어진다. 그러나 單位 部落이 넓은 경우에는 부락에 관한 管轄權을 가진 단골이 여럿이 존재하여 이들 간에 分割이 이루어진다. 이 분할은 일반적으로 姓氏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단골이 氏族의 專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姓氏라도 단골이 다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珍島 단골이 존재하면서 판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단골판은 17개이다. 이 17개의 판이 일시에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 단골판을 지역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珍島邑의 경우는 山月, 壽域里 一帶의 판을 제외한 모든 판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데, 사정리 韓氏의 단골판은 山月, 壽域里를 중심으로 하지만, 바굼섬, 전두, 월평, 매항, 소포동, 신흥의 자연부락과 邑중심지의 중복되는 지역인 북상에서 慶州朴氏, 東外里에서 慶州朴氏, 韓氏, 盧氏 등의 姓氏에 대해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정리의 다른 金氏는 珍島邑 고작, 남산, 서촌, 정자, 해창지역을 중심으로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珍島邑 浦山里의 金氏는 浦山里의 朴氏, 念丈, 사천, 읍내, 義新面 하굴의 朴氏 판을 유지하고 있다. 西外里 金氏는 珍島邑 서촌, 郡內面 德柄, 月加里를 중심으로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古郡面의 단골판은 五山里 安氏가 五山, 芝幕, 지수, 금학, 하를, 벌포, 內山, 遠浦里와 五日市の 朴氏, 趙氏, 金氏, 古城里的 韓氏, 任氏 등과 단골관계를, 五日市の 李氏는 香洞, 모사, 佳界, 용호를 중심으로 단골관계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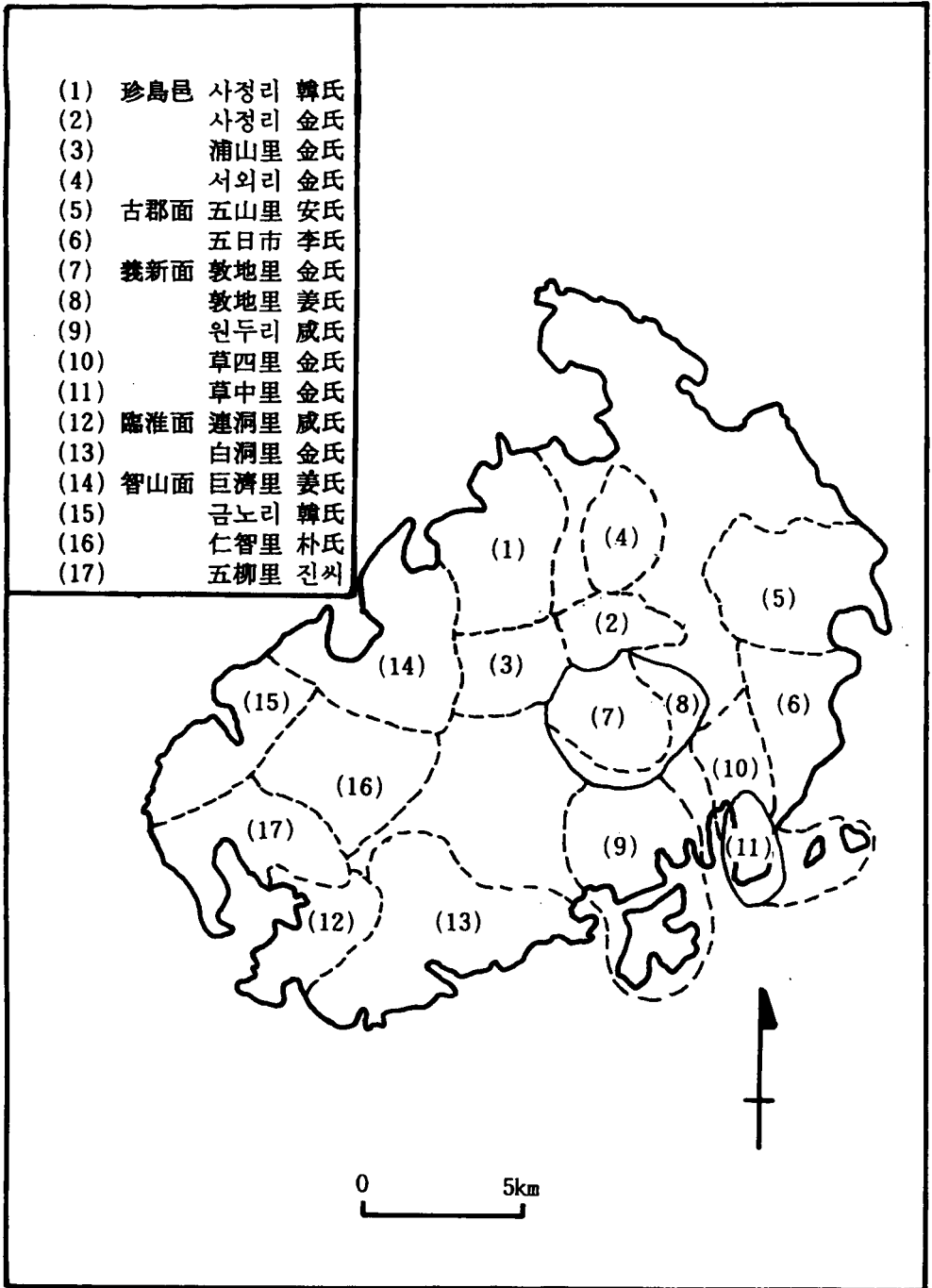


그림 3. 단골판의 境界圖 (1975년)  
 실선은 단골판의 중복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

하고 있다.

義新面은 敦地里的 金氏는 敦地, 玉垵, 昌浦, 중리, 가단, 침계, 영산, 靑龍, 七田, 응덕, 連珠부락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姜氏는 敦地, 玉垵, 중리, 靑龍, 정지, 가단, 영산, 침계, 昌浦, 巨龍, 晚吉 文氏를 중심으로 하여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인두리의 威氏는 義新面 원두, 사정, 松亭, 金甲, 接島, 죽청, 활곡, 신정, 晚吉(文氏 제외), 巨龍리의 徐氏, 朴氏, 金氏, 臨淮面 竹林, 강계, 상미의 金氏를 중심으로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草四里的 金氏는 응덕, 連珠, 草上, 草中, 초평, 송천, 군포, 茅島, 회동을 중심으로, 草中里 金氏는 草上, 草中, 군포, 초평의 申氏, 張氏, 金氏를 중심으로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臨淮面은 連洞의 威氏는 連洞, 팽목, 서망, 동구, 유목, 白洞의 李氏, 남선의 郭氏, 屈浦의 郭氏, 신동의 郭氏를 중심으로 하고, 白洞의 金氏는 白洞, 南洞, 屈浦, 上萬, 탐림, 송정, 송월, 고방, 월평, 귀성, 신동, 남선, 鳳翔, 石橋를 중심으로 하여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智山面은 巨濟里的 姜氏는 巨濟, 鞍峙, 素浦, 吉隱, 고길, 닭섬, 갈두, 寶田, 古野, 十日市, 장구포, 珍島邑, 바곰섬, 세내동, 木浦의 郭氏, 서울의 許氏 등을 중심으로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노의 韓氏는 금노, 臥牛, 加峙, 加鶴, 세방, 붉은언덕, 세포의 자연부락에 단골집을 소유하고 있다. 五柳里的 陣氏는 五柳, 일촌, 松湖, 觀馬, 대판, 봉암동, 대천, 사천, 수장동, 深洞里를 중심으로, 仁智里的 朴氏는 仁智里, 三堂里, 마상동, 觀馬里, 臥牛洞, 臨淮面 石橋里를 중심으로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7개의 단골판을 자연부락의 단위로 하여 구분하여 보았다. 자연부락의 단위가 많은 판은 珍島邑에서 1개, 義新面에서 3개, 智山面에서 2개, 臨淮面에서 1개로 이 지역의 판은 판을 관리하는 단골이 다른 지역의 단골보다는 巫儀禮의 집행에 있어서 더 뛰어나서 판의 영역을 늘려갔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졌

다.

### (3). 단골판의 規模

珍島의 단골판은 단골판의 境界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현재 조사에 의하면 17개의 境界地域으로 나누어진다. 17개의 境界地域이 단일 단골판이다. 珍島의 단골판의 規模를 단일 단골판에 속하는 自然部落의 數, 단골판의 自然的 領域의 크기와 단골판 內의 家口數로 파악을 할려고 한다. 그러나 이 17개판 內의 모든 家口가 단골과 종교적인 獨점關係를 유지하였으리라 가정할 수 있지만 그 關係에 대하여 현재의 단골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확실하게 規模를 밝히기는 어렵다.

珍島 단골판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자연부락은 村落共同體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강한 地緣性을 갖고 있어 단결력이 매우 강하다. 단골판도 이러한 단결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珍島 단골판의 17개의 판은 金泰坤의 著書에 의하면 1960년대 말에 湖南 地方의 巫俗의 현지조사에서 世襲巫 단골이 巫俗上의 管轄구역인 “단골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단골판은 자연부락 단위 또는 門中單位로 구획되어 그 規模는 5, 6개 부락에서 10여개 부락까지 되며, 보통 500호 內外로 부터 크면 1500호 內外가 된다고 했다.

珍島 단골판의 자연부락의 數는 珍島邑의 경우 사정리의 韓氏의 판은 약 8부락, 사정리의 金氏의 판은 5부락, 浦山里의 金氏의 판은 4부락, 西外里의 金氏의 판은 3부락이다. 古郡面의 경우 五山里의 安氏의 판은 10부락, 현재 五日市에 거주하는 李氏의 판은 4부락이다. 義新面의 경우 원두리 威씨의 판은 14부락, 敦地里의 金氏의 판은 11부락, 敦地里의 姜氏의 판은 11부락, 草四里의 金氏의 판은 9부락, 草中里의 金氏의 판은 4부락이다. 臨淮面의 경우

連洞의 威氏의 판은9부락, 白洞의 金氏의 판은14부락이다. 智山面의 경우 巨濟里의 姜氏의 판은 14부락, 金노의 韓氏의 판은 7부락, 五柳里의 陳氏의 판은 10부락, 仁智里의 朴氏의 판은 6부락이다. 진도 단골판의 자연부락의 수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4개로 나타나고 있다. 金泰坤의 연구에서 자연부락의 단위는 5~10개 사이로 조사되었으나, 珍島의 경우는 3~14로 그 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1960년대 말에는 단골이 표1에서와 같이 지금 보다는 숫자면에서 월등히 많아서 현재보다도 단골판의 영역이 좁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17개의 경계지역의 단골판을 直線距離로 규모를 조사했는데, 이 직선거리는 단골이 거주하는 지점에서 가장 먼 단골집과의 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실제의 거리와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珍島의 단골판의 직선거리는 珍島邑의 경우 사정리의 韓氏의 판은 약 5km이고, 사정리의 金氏의 판은 2.5km이고, 浦山里의 金氏의 판은 2km이고, 西外里의 金氏의 판은 5km로 珍島邑의 단골판의 평균거리는 약 3.6km이다. 古郡面의 경우 五山里의 安氏의 판은 4km, 五日市의 李氏의 판은 4km이어서 古郡面의 경우 약 4km의 평균거리를 갖는다. 義新面의 경우 원두리의 威氏의 판은 4km, 教地里的 姜氏의 판은 3.5km, 教地里的 金氏의 판은 2km, 草四里의 金氏의 판은 3.5km, 草中里의 金氏의 판은 2km로 義新面의 경우 약 3km의 평균거리를 갖는 단골판을 소유하고 있다. 臨淮面의 경우 연동의 威氏의 판은 3km, 백동의 金氏의 판은 6km의 직선거리를 가져 약 4.5km 内外의 단골판으로 나누어져 있다. 智山面의 경우 巨濟里의 姜氏의 판은 4km, 金노의 韓氏의 판은 5km, 五柳里의 陳氏의 판은 3.5km, 仁智里의 朴氏의 판은 3.5km로 약 4km의 평균거리를 갖는다. 珍島의 단골판에서 가장 먼 단골집과 평균거리는 약 3.4km이다. 珍島의 단골판 중 단골집과의 거리가 가까운 판은 義新面 教地里的 金氏 판, 義新面 草中里 판과 珍島邑 浦山里의 金氏의 판으로 약 2km의 거리 안에 단골집

들이 분포하고 있다. 가장 먼 단골집을 가진 단골판은 臨淮面 白洞의 金氏의 단골판으로 직선으로 약 6km의 거리에 있다.

珍島의 단골판의 규모에 있어서 단골집의 家口數는 현재의 숫자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된다. 단골집들이 과거와는 달리 宗教的 獨점관계의 구속력이 약해져서 경제적 행위인 도부를 시행하지 않고, 단골들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 도부에 의하여 경제력이 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부를 받으러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아주 친밀한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들만을 돌아 다니면서 도부를 걷는다.

珍島의 단골판의 가구수는 珍島邑의 경우 사정리의 韓氏는 처음에 70여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약 350여호와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에도 도부의 관행이 잘 유지되고 있는 단골판이다. 현재는 약 60%정도와 단골관계를 유지하여 한해에 약 12가마의 도부를 받았다. 珍島邑 사정리의 金氏는 약 60호정도와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너무 年老하여 단골판을 관리하기 힘들어 판을 버려두어 지금은 1가마 이하로 도부를 받고 있다. 珍島邑 浦山里의 金氏는 약 70여호의 단골판을 소유하여 쌀 3가마 정도의 도부를 받고 있다. 珍島邑 西外里의 金氏의 경우 약 50여호의 단골집에서 벼 2가마 정도의 도부를 걷어 들였다. 古郡面의 경우 五山里의 安氏는 단골판의 약 100여 가구로부터 봄도부는 40여년 전에 없어졌고, 가을도부는 10여년 전부터 소멸되었다. 현재는 굿 의뢰가 들어오면 주위의 젊은 단골에게 부탁한다. 五日市의 단골 李氏는 古郡面 香洞·모사·가계의 300여 호의 단골집을 사서 단골판을 유지하였으나, 10여년 전에 이사하여 그가 유지하던 단골판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義新面은 敦地里의 金氏는 300여호의 단골판을 소유하였고, 姜氏는 200여호와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부의 관행은 거의 소멸되었다. 원두리의 威氏는 臨淮面 竹林에서 義新面 晚吉까지 약 600여호의 단골집을 소유하고 있는 珍島에서 최대의 단골판을 소유하고 있는 단골이다. 草四里의 金氏는 약

50여 가구의 단골판을 소유하여 도부로 약4가마 정도의 도부를 걷는다. 草中里的 金氏는 75가구정도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부의 관행은 약 20여 년 전에 소멸되었다. 臨淮面은 連洞의 威氏는 320여가구와 단골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흐지브지되었다. 白洞의 金氏는 400여호와 단골관계를 유지하여 20~30가마의 도부를 거둬들였다. 智山面은 巨濟里的 姜氏는 1950년에 朴明才씨로부터 1호당 쌀 1말 값을 주고 단골판을 샀다. 이 판에 속하는 가구수는 약 300여호 이다. 단골판 내의 단골집들에서 봄·가을로 도부를 받는다. 도부의 양은 각 가구마다 동일한 양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게는 3~4되에서 많게는 2말까지를 거둬들였다. 지금은 가을도부로 호당 1~2되 씩으로 4가마정도의 도부를 받았다. 금노리의 韓氏는 350여호와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五柳里的 陣氏는 300여호와 단골관계로 현재는 3~4가마 정도의 도부를 걷고 있다. 仁智里的 朴氏는 200여 가구와 단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珍島의 단골판의 規模는 가구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 50여 가구에서 크게는 600여 가구까지 그 차이가 10배를 넘기고 있다. 단골판의 規模는 평균적으로 240여호의 단골집을 소유하고 있다. 도부의 規模는 단골판의 가구규모와 비례한다. 1회당 도부의 양은 정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단골집의 경제 사정에 의하여 주는대로 걷어 들이는데 호당 평균 1~4되의 도부를 주고 있다.

珍島의 단골의 단골판은 그 규모면에서는 金泰坤의 조사의 규모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이다. 金泰坤도 前揭書에서 珍島의 두개의 단골판의 규모를 밝혔다. 世襲巫 단골 鼓人인 朴萬俊의 판인데, 그 판은 珍島郡 臨淮面 上萬里 · 귀성리 · 탑리의 3개 마을로 단골관계를 맺고 있는 民家 總數는 150호이다. 또 世襲巫 단골 朴先乃의 경우는 珍島郡 珍島面(珍島邑)의 城內里 · 西外里 · 東外里 · 남산리 · 교동리의 5개리를 갖고 있으며, 신도인 단골집은 300호 정

도이다.

이와같이 珍島의 단골판이 湖南地方의 다른 지역보다 판의 규모가 작은 것은 단골업에 종사하는 단골의 숫자가 珍島에 많이 밀집되어 분포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4). 단골판의 變貌

珍島의 단골판은 표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단골의 數의 감소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變貌되어가고 있다. 단골판에 있어 變貌의 양상은 경제행위인 도부의 관행의 변화에 의하여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행위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巫에 대한 종교적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그 종교적 관심의 일부가 基督教을 비롯한 다른 현대종교에 흡수되어 단골의 종교적 기반이 쇠퇴해진 데서 단골의 宗教社會的 制度化的 均衡을 잃게 된 것과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단골 巫系가 단절된 원인과 延長性을 갖는 문제로 단골의 자녀가 巫로부터 탈피하여 단골판을 고수하려는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단골의 조직력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 단골들의 생활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단골이 다른 지역으로 직업을 찾아 移住함으로써 단골판의 構造가 瓦解되어 현재는 단골판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현재 단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老齡化되어 단골판 內에서의 굿 儀禮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지역의 단골을 招致하여 굿을 하여 굿돈을 나누거나, 다른 지역의 단골에게 전적으로 의뢰를 하게 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판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다.

단골판의 變貌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단골이 단골업을 포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현재 조사된 단골판은 이러한 변모과정의 말기에 도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現存의 단골들이 단골판에 대한 집착이 없거니와 단골 관계를 맺고 있는 집들에서도 단골에 대한 종교행위와 경제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골판은 판의 賣買, 質貸와 단골의 移住로 인하여 판의 領域이 변화한다. 현재는 老齡化되어 판을 관리할 수 없어 판이 소멸되고 있다. 지금까지 面談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단골판의 變貌를 賣買, 質貸, 老齡化 등의 유형별로 알아보고자 하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완전한 變貌를 알기는 어려우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골판의 변모를 記述하고자 한다.

단골판의 賣買에 의한 變貌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珍島邑 사정리 韓氏의 경우 義新面 敦地里에서 珍島邑 송현마을로 시집와서 巫業과의 인연을 끊고자 義新面에서 살다가 시아버지의 권유로 30여년 전에 山月里 판을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10년 후 珍島邑 城內里의 韓氏로부터 전두, 살목, 월평, 매향, 소포동, 신흥, 壽域 등의 단골판을 1호당 쌀 2되를 주고 구입하고, 또 북상리의 慶州朴氏, 東外里의 慶州朴氏, 韓氏, 蘇氏의 단골판을 오산네로 부터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古郡面의 경우 五山里의 安氏에 의하면 약 30여년 전에 內山里의 판을 車氏로부터 구입하였고, 芝幕리와 오상리에 단골이 각 1인씩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五日市에 거주하는 李氏는 靈岩으로 시집을 갔다가 이혼 후 친정인 珍島로 와서 巫業을 계속하고자 해서 古郡面 香洞, 모사, 佳界 일대를 姜氏로부터 구입하고, 郡內面 松山里 일대를 珍島邑의 蔡氏로부터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단골판의 유지는 흐지부지 소멸되어 가고 있고, 당사자도 단골판의 유지를 부인하고 있다. 義新面의 경우 敦地里的 金氏는 시부모로부터 玉埜里, 靑龍里, 증리의 판을 상속받았고, 약 25년 전에 七田마을의 판을 珍島邑에 사는 蔡氏로부터 구입하였고, 그 외의 판을 金氏로부터 구입하였다. 원두리의 威氏는 어려운 가정의 차남에게로 시집을 가서 판을 상속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친정부모로부터 義新面 晚吉과 원두리의



일부 판을 물려받아 판을 관리하고, 그 후 남동생이 서울로 이사가면서 판을 남겨주었고, 그 후에 나머지의 판을 넓혀 臨淮面 竹林에서 義新面 晚吉까지의 영역을 소유하고 있다. 智山面의 경우 巨濟里 거주하는 姜氏는 臨淮面 十日市로 시집을 갔으나, 시집의 생활이 너무 궁핍하여 결혼 후 7~8년 동안 친정살이를 하면서 친정부모의 굿판을 따라 다니면서 巫儀를 완전히 습득하였다. 친정살이 동안에 모았던 논과 밭을 팔아 巨濟里 일대의 단골판을 내놓은 朴明才라는 사람에게서 사서 巨濟里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면서 단골판을 관리하고 있다.

珍島 단골판 중 質貸가 확인된 경우는 智山面 巨濟里의 姜氏의 판으로 약 10여년 전에 朴秉千氏로부터 仁智里의 200여 호를 인계받아 한해에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質貸를 하였으나, 수지가 맞지 않아 2년 후에 다시 돌려주고 기존의 판을 관리해 오고 있다.

단골의 老齡化에 의하여 판이 소멸되는 경우는 珍島邑 사정리의 金氏의 고작, 남산, 정자, 서촌, 해창의 단골판으로 先代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年老한 탓에 거의 와해되어 버렸다. 珍島邑 浦山里의 金氏의 浦山, 하굴, 念丈, 사천, 邑內의 판을 가지고 있으나 年老하여 판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珍島邑 西外里의 金氏는 德柄, 月加, 서촌 일대의 단골판을 소유하고 있으나 年老하여 단골판을 관리하지 못하고 주위의 젊은 단골에게 굿儀禮를 부탁하고 있다.

珍島 단골판 중 世襲에 의하여 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판은 臨淮面 連洞의 威氏의 판으로 부모로부터 連洞, 서망, 팽목, 동구지, 白洞, 屈浦, 남선, 신동 등의 판을 세습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臨淮面 白洞의 金氏도 白洞, 屈浦, 上萬, 탑립, 鳳翔, 南洞 一帶의 판을 세습하여 유지하고 있다. 智山面 五柳里의 陳氏는 五柳, 觀馬, 대판, 深洞, 수장, 松湖, 봉암, 사천, 월촌 부락의 판을 부모로부터 물려 받아 유지하고 있다. 智山面 금노의

韓氏는 금노, 臥牛, 加峙, 加鶴, 세포 부락의 판을 부모로 부터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다.

#### 4. 단골의 通婚圈

婚姻은 개인이나 집단간의 相互連結體系로써 사회적인 신분관계를 보여주어 왔다. 通婚은 사람과 정보, 물자와 용역의 움직임을 類型化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체계를 이루는, 또한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 현상으로 通婚圈의 형성은 婚姻을 통하여 지역사회 内の, 또는 지역사회를 넘어서 姓氏들 간에 관계를 맺고 이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인간활동의 產物<sup>50)</sup>로 과거 우리 사회 특히 농촌사회는 교통의 불편, 경제적 빈곤, 階級內婚의 殘滓 등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적 범위에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sup>51)</sup>

우리의 전통사회는 兩班과 常民, 常民과 賤民 등 계급 간에 일반적으로 婚姻이 금지되거나 타부시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사회가 개항 이후 서구의 문물이 물밀듯이 수용되고, 6. 25와 공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공동체의 삶이 파괴되면서 금기시되었던 전통들이 많이 쇠퇴해졌다. 오늘날의 농촌지역은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 또는 원거리의 취학, 취업기회의 확대, 자유사상의 보급, 그리고 계급관념의 해소와 전통사회의 변화 등으로 通婚의 성격의 변화와 더불어 通婚圈이 확대되었다.<sup>52)</sup>

結婚이 사회구조의 再編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므로 새로운 사회관계의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배우자 선택은 同類婚을 강조하게 된다. 同類婚은 근접성, 사회적 압력과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같은 제요인에 의하여 규정되는데<sup>53)</sup> 珍島의 단골은 賤民이었기 때문에 同類婚이 혼인의 主流를 이루었다. 이러한 同類婚은 사회적인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50) 鄭勝模, 1983, “通婚圈과 地域社會體系研究”, 韓國文化人類學 제15집, 韓國文化人類學會, p. 130.

51) 崔在律, 1975, 前掲書, p. 32.

52) 崔在律, 1975, 前掲書, p. 32.

53) 崔在律, 1975, 前掲書, p. 35.

골은 상위의 계급집단에서 천민이라하여 婚姻을 기피하고 최하층의 집단인 백정과는 단골이 기피하여 결혼은 당연히 동관<sup>54)</sup> 과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에 의하여 同類婚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천시를 받게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도시로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이동이 과거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았으나, 1970년을 前後하여 이동에 있어 급격한 진전을 보이는데, 이는 도부의 관행이 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巫業을 迷信이라하여 타파해야 될 舊時代의 殘滓로 여겨 信徒들이 종교적인 관심이 약해져서 소멸되어 경제적인 곤란을 느껴 도시로 이주하여 경계를 해결하려고 하여 이동이 많아졌다.

이러한 이동은 珍島에서 학업을 마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거의 고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대상지역은 全羅道 사람의 접촉이 적은 지역이다.

## 1). 同系와의 通婚圈

珍島 단골의 通婚은 階級內婚이 주이다. 단골의 階級內婚이 단골사회를 유지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으나, 개항 이후 신분제의 철폐로 단골들이 천민이라는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단골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珍島 단골의 婚姻은 주로 珍島郡과 그 인접 郡의 동관과 맺어지는데, 이는 특정계급화 되어 珍島나 인근 郡에서 상민이나 그 이상의 계급과의 通婚이 불가능하고, 인근 주변을 벗어난 지역과는 교류가 없어서 婚姻을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54) 단골간의 관계를 칭함.

各姓村落의 낮은 신분층들이 村落內婚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들에게는 마을 밖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인관관계나 활동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원거리 通婚이 가져다 주는 부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55)</sup> 고 했으나, 珍島의 단골은 낮은 신분임에도 촌락내혼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골이 천민이기 때문에 상민과 결혼할 수 없어 같은 단골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단골의 수가 적어서 혼인할 대상이 촌락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단골은 村落外婚을 주로 하고 通婚의 영역은 다소 넓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珍島 단골의 通婚圈을 모든 단골들의 通婚關係를 파악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데 단골과의 面談의 어려움 때문에 쏠 단골을 포함하지를 못하고, 面談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珍島邑 사정리의 韓氏는 부인을 義新面 敦地里에서 맞이하였다.

珍島邑 城內里의 李氏家는 臨淮面 송월의 朴氏家와 혼인을 맺었다.

古郡面 五山里의 安氏家는 4남 1녀 중에서 막내인 여동생 만이 非系와 결혼하였고, 나머지는 同系와 결혼하였다. 장남은 義新面 敦地里 金氏家와 혼인관계를 맺었고, 2남은 靈岩郡의 金氏家에서, 3남은 古郡面 香洞에서, 4남은 珍島邑에서 며느리를 얻었다. 장남을 남기고 모두 서울로 이사를 가고, 현지에는 맏며느리 만이 아들과 살고 있다. 장남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두아들은 동관과 혼인하였다. 智山面 五柳里 陳氏家와 臨淮面 上萬의 朴氏家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다.

義新面 敦地里의 金氏家는 장녀는 古郡面 五山으로 시집가고, 2녀는 臨淮面 송월로 시집가고, 3녀는 古郡面 芝幕里로 시집가서 이혼하고 다른 곳으로 재혼하고, 4녀는 臨淮面 三幕里의 金氏 덕으로 시집을 가고, 막내는 진주 姜氏

55) 鄭勝模, 1983, 前掲書, p.130.

와 결혼하였으나 사별하고, 新安郡 하의면 상태리 출신의 채씨와 재혼하여 살고 있다.

義新面 草四里의 金氏는 장남은 新安郡 長山에서 부인을 얻고, 둘째며느리는 智山面 仁智里에서 시집오고, 장녀는 海南郡 우수영으로 시집가고, 2녀는 古郡面 芝幕里로 시집가고, 3녀와 4녀는 木浦의 東觀에게 시집을 가고, 막내는 珍島邑으로 시집을 갔다.

草中里 金氏家는 臨淮面 三幕里에서 첫째 며느리를 얻고, 장녀는 珍島邑으로 시집을 보내고, 2녀는 珍島邑 浦山里로 시집을 보냈다.

臨淮面 三幕里의 金氏家는 장녀는 義新面 草中里로 시집을 가고, 장남은 義新面 七田의 巫系와 혼인하고, 2녀는 古郡面 石峴으로 시집을 가고, 3녀는 木浦로 시집을 가고, 2남은 鳥島에서 부인을 얻고, 3남은 木浦사람과 通婚하였다.

智山面 巨濟里의 姜氏는 첫째는 新安郡 하의면 상태리에서 며느리를 얻고, 셋째는 靈岩에서 시집오고, 둘째, 네째, 다섯째는 非系와 결혼하였다. 五柳里의 진씨댁은 첫째는 臨淮面 南洞에서 며느리를 얻고, 둘째는 新安郡 黑山島에서 시집왔다. 현재 五柳里에 첫째가 거주하는데, 며느리를 海南 成氏家에서 맞이하였다.

臨淮面 南洞의 한씨가는 장녀는 臨淮面 上萬里로 시집가고, 2녀는 新安郡 黑山島로 시집가고, 3녀는 珍島郡 鳥島의 崔씨가와 혼인하고, 4녀는 智山面 寶田里의 이씨가로 시집가고, 5녀는 新安郡 黑山島로 시집가고, 6녀는 智山面 五柳里의 진씨가로 시집가고, 막내는 郡內面 細동으로 시집가고, 외아들은 臨淮面 三幕里에서 부인을 맞아들였다.

臨淮面 上萬里의 朴氏家는 장남은 新安郡 黑山島 수리의 崔씨의 여자과 혼인하였고, 차녀는 古郡面 五山里의 안씨가로 시집을 갔다. 三男은 臨淮面 南洞의 韓氏家와 혼인을 맺었고, 3녀는 臨淮面 三幕里의 金氏와 혼인하였다.

4녀는 智山面 韓氏家와 혼인하였다.

智山面 금노의 韓氏家는 鳥島面 서거차도 威氏 巫系와 혼인하여 1녀는 智山面 寶田里의 鼓人 姜氏家와 혼인하였고, 2녀는 智山面 巨濟里의 姜氏家와 혼인하였다.

珍島 단골의 同系와의 通婚은 珍島를 중심으로하여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珍島, 新安, 木浦, 海南, 靈岩 지역 내에서 만이 通婚圈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珍島의 단골집단의 활동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珍島 단골은 약 60km 내의 통혼권을 갖는다.

珍島 단골의 通婚圈은 전반적으로 珍島郡 內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通婚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층은 현재 40대 후반부터 이다. 珍島郡 內에서 通婚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珍島郡 外지역과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혼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地域社會體系 내지는 構造의 파악과 상호의 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통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의 범위를 밝혀내는 것은 곧 통혼 당사자들의 生活圈, 또는 그들의 활동영역이 되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sup>56)</sup> 珍島 단골의 통혼은 과거 단골의 활동영역을 알 수 있다. 현재 60세 이상의 단골은 거의 대부분이 동관과 결혼하였다. 그 通婚圈이 珍島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 珍島의 단골의 활동영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同系와의 通婚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지역과의 접촉의 정도가 깊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56) 鄭勝模, 1983, 前掲書,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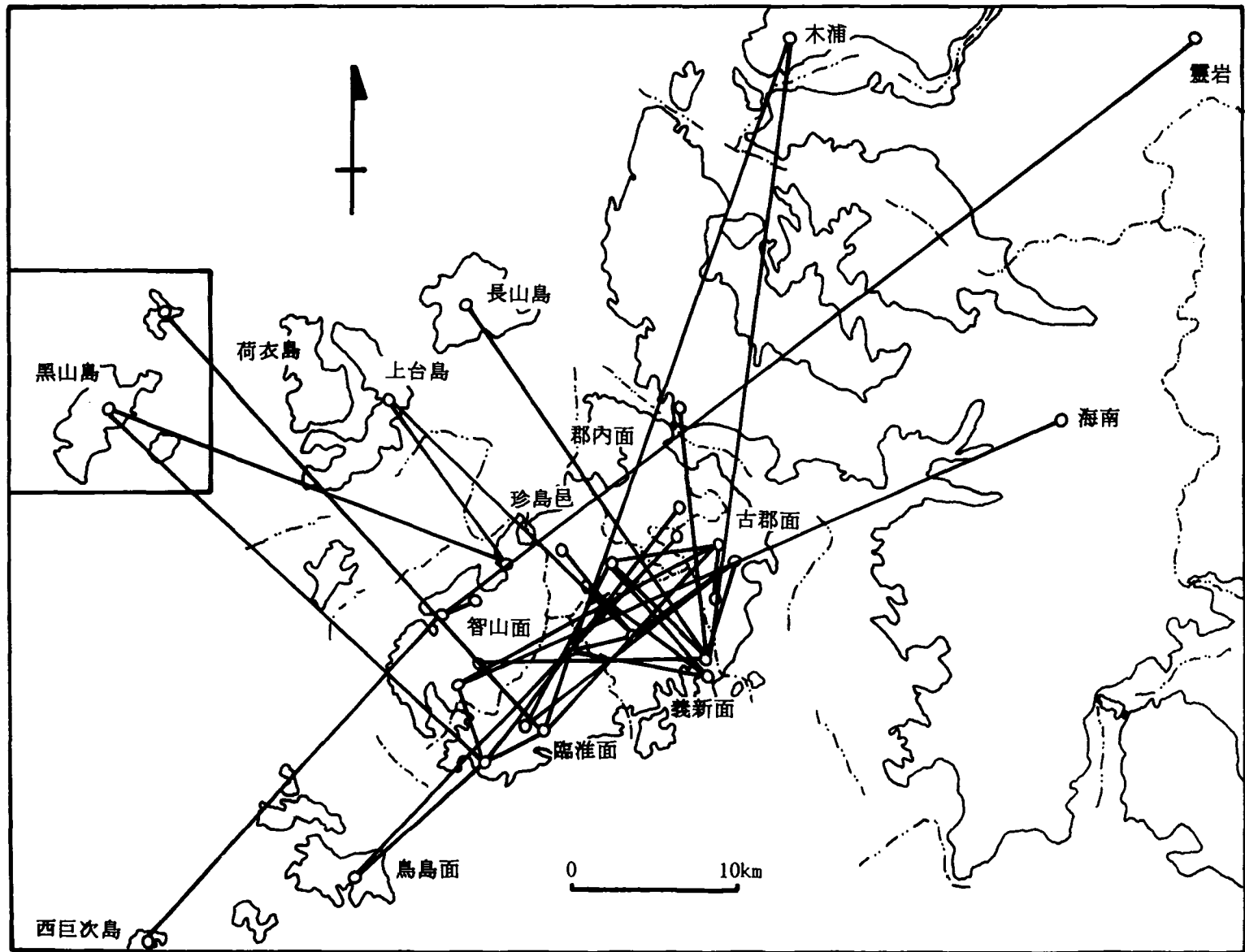


그림 4. 同系와의 通婚圈(1990년)



## 2). 非系와의 通婚圈

珍島의 단골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의하여 珍島 외 지역으로의 移住가 많아지고 있다. 1960年代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韓國에서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都市에 일자리가 많아 경제적인 혜택을 농촌에서 보다는 더 누릴 수 있는 도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단골도 지역사회에서의 천시를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도시로 이주한다.

珍島 단골은 階級內婚의 관행이 通婚圈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同系와의 通婚圈에서 설명되었다. 珍島 단골의 非系와의 결혼은 階級內婚의 규제에 의하여 通婚圈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非系와 결혼한 단골 後孫은 일찍 珍島를 떠나 外地에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분의 노출이 안되서 결혼을 할 때는 신분에 의하여 혼인에 제약이 없다.

珍島 단골의 非系와의 通婚圈은 두 지역으로 나누고자 한다. 珍島郡 내의 通婚圈과 珍島郡 밖의 通婚圈이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자의 지역 내의 통혼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후자의 지역과의 통혼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珍島의 주변지역에서는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階級意識에 의하여 단골과의 혼인을 꺼리기 때문이다.

珍島 단골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50명이 非系와 결혼하였다. 珍島郡 内の 통혼은 14명이 했는데, 珍島邑 非系와는 7명이 혼인을 하여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智山面 1명, 臨淮面 2명, 義新面 2명, 郡內面 1명, 鳥島面 1명이다. 珍島郡에서 非系의 비율이 珍島邑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珍島邑이 통혼가능한 연령의 인구가 많고, 다른 면지역보다는 보수적 성격이 약하여 계급차별적인 통혼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珍島邑과의 通婚은 7명중 6명이 非系 남성이

다. 이들 14쌍 중에서 현재 珍島에 거주하는 쌍은 6쌍이고, 나머지는 서울이 3, 大邱가 3, 光州가 2쌍으로 모두 대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들 珍島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것 중 大邱가 차지하는 것이 이채롭다.

海南郡은 4명, 新安郡은 2명으로 同系와의 통혼지역과의 類似에 의하여 이들 지역과의 통혼은 중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海南과 新安은 단골의 通婚圈 지역으로 서로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어 通婚이 이루어지고 있다.

珍島 外의 全羅道와의 通婚은 光州 3명, 麗水 1명으로 珍島 外의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는 珍島의 단골이 신분상에 있어서 천대를 받은 경험에서 의도적으로 全南地域을 회피하여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全南地域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과의 혼인은 13명으로 珍島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이다. 서울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時 가장 많이 유입되는 도시이다. 珍島의 단골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장 適地가 서울이고, 서울은 계급적인 천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釜山 3명, 大邱 2명, 慶州 3명, 濟州道 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은 자기 집안에서 이 지역에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를 緣故로 하여 학업을 마치고 이주를 한다. 그 후 경제적 기반을 잡아 그 지역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

江原道 2명은 서울에 거주하다가 江原道 출신 군인과 결혼을 하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

珍島 단골의 非系와의 通婚은 珍島와 주변지역에서는 친·인척에 의한 중매에 의한 결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珍島 주변 외 지역의 경우는 중매에 의한 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珍島 단골의 非系와의 통혼에서 慶尙道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단골이 珍島에서 거주하면서 너무나 심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대를

피하여 자기에 대해 숨길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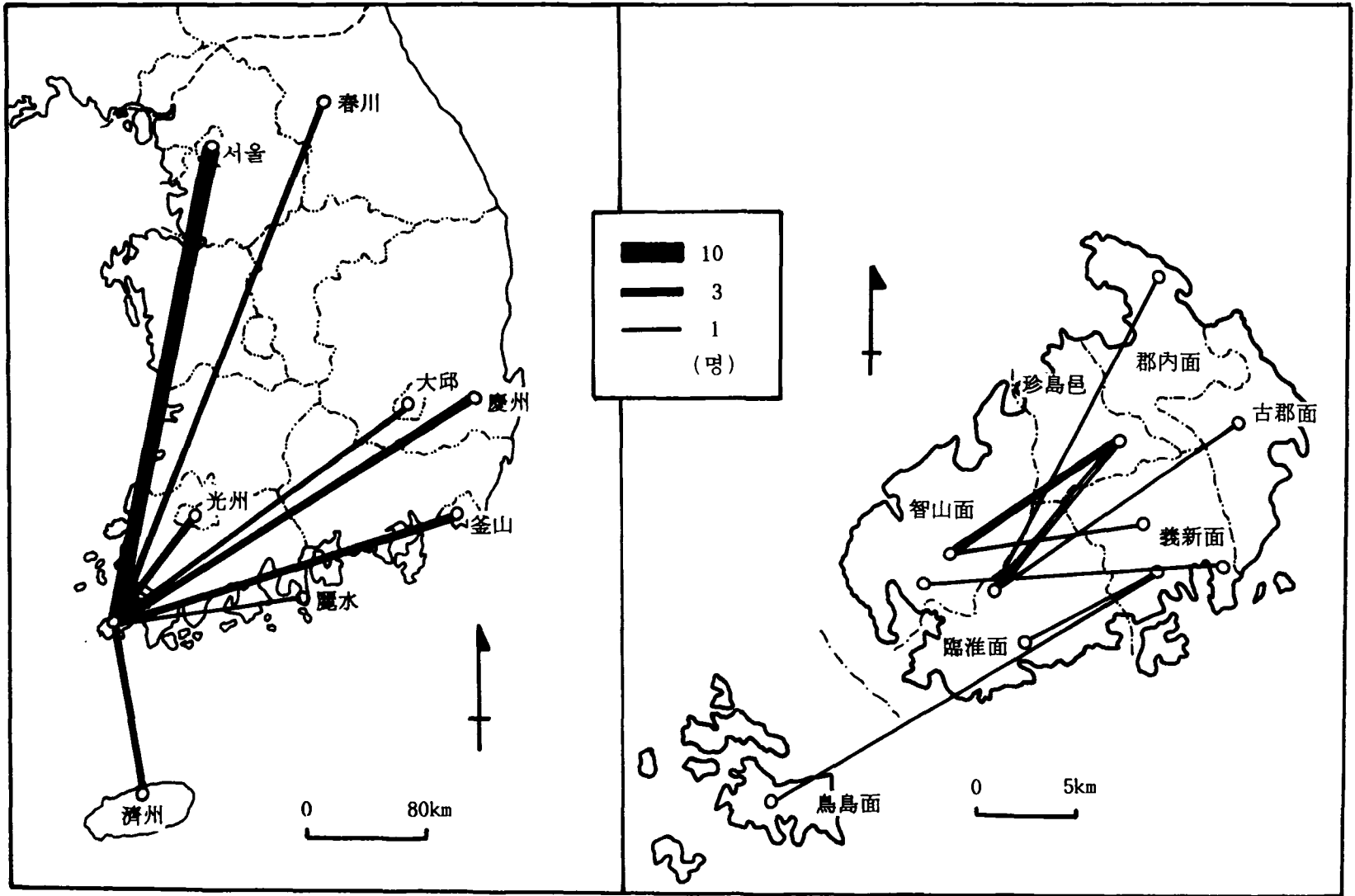


그림 5. 非系와의 通婚圈(1990년)

### 3). 通婚關係의 變化

珍島 단골의 通婚關係는 同系와 非系간의 혼인에 의하여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단골들은 同系와 혼인을 하여 珍島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앞절의 同系와의 通婚圈에서 보았듯이 珍島의 단골들은 단골사회의 지역체계 내에서 체계를 유지하는데 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珍島 단골의 혼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특수집단화 되었기 때문에 階級內婚의 전형을 이어오게 된다. 階級內婚은 그 계급집단의 계급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와의 通婚에 의한 접근을 막자고 하는 것이나 珍島의 단골은 그 상위의 계급집단들에 의하여 階級內婚化가 되었다. 계급내 혼화로 인하여 珍島의 단골은 그 체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서양문물의 수용과 계급의 타파 등으로 천민이라는 사회체계를 깨뜨리려 하는 욕구들이 분출되어 그 공동체 사회에서 벗어나 이익사회로의 이동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대도시로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 珍島의 단골의 경우 현재 珍島에 거주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그림 6>은 珍島 단골의 通婚에서 통혼관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家系圖이다. 이 家系는 臨淮面 白洞의 韓氏家의 것으로 한성원씨는 연세가 90이 넘는다. 그 아래세대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모두 巫系와 통혼을 하였고, 차세대는 박만준씨의 가계에서 보면 非系와 통혼이 되고 通婚圈도 珍島 주변 지역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家系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珍島 단골은 현재의 60歲 이상의 경우는 I에서와 같이 모두 동관과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세대인 40대와 그 아래는 II와 같이 동관과 非系の 비율이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4세대에서는 동관이라는 체제 자체가 파괴되어 그의 전원이 非系와 혼인관계를 맺을 것이다.

珍島 단골의 혼인에 있어서의 변화는 通婚圈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60세 이상인 단골의 사회에서는 珍島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체계에서 通婚圈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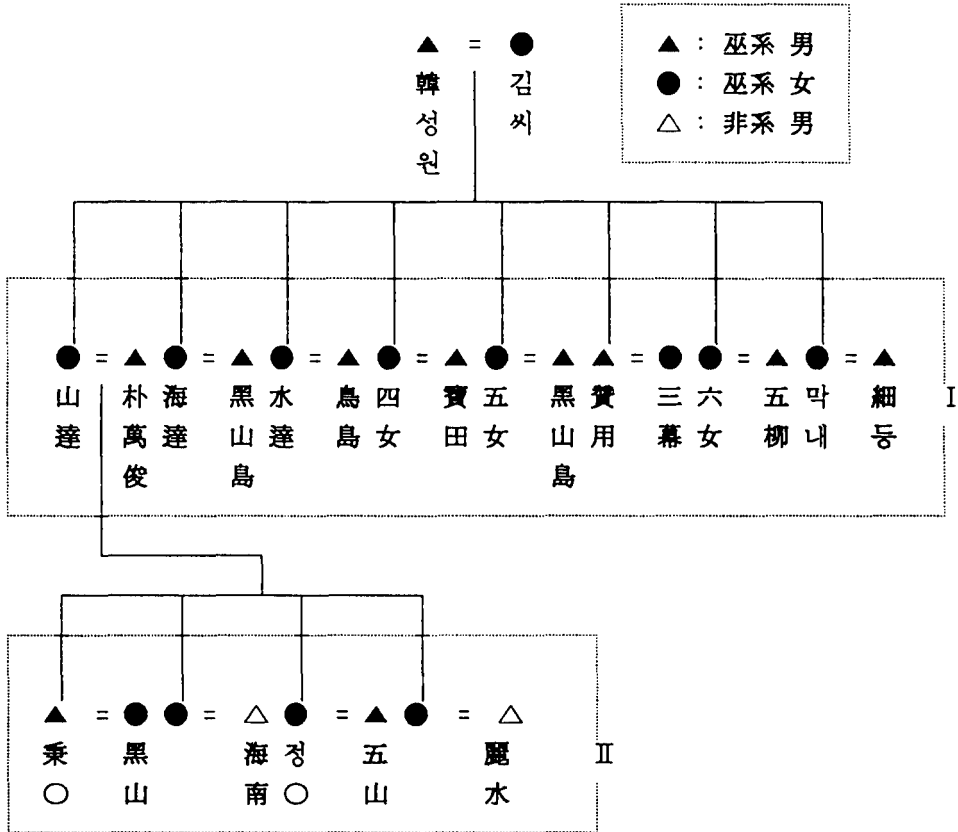


그림 6. 珍島 단골의 婚姻 關係 變化圖

자료 : 珍島巫俗 現地調査, p.156.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세대는 외부로의 이동이 빈번하여 珍島 외 지역과의 生活圈이 형성되면서 通婚圈이 확대되었다.

珍島의 단골의 同系와의 通婚은 珍島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형성되고 있

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珍島의 단골이 특정 계급화되었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없어서 주변의 친·인척의 중매에 의하여 혼인이 이루어지므로 同系와의 通婚은 주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 地域社會 內에서의 특정 계급과의 통혼으로 珍島의 단골들은 사회적으로는 천대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同系와의 通婚圈은 珍島 주변지역에서 형성되고, 非系와의 通婚은 珍島와 먼 도시지역과 연결되고 있다.

朱京植의 論文<sup>57)</sup>에 의하면 珍島의 通婚圈은 標準市場圈 즉, 珍島의 小市場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通婚圈의 형성에는 道路網이 직접 관련되며, 현재 및 과거의 행정구역이 通婚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珍島의 통혼은 이웃 마을간에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들 몇개의 마을들이 모여서 地域單位(通婚圈)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村落은 珍島邑을 도착지로서 갖는데, 74개 行政里 가운데 13個里만 빼고는 모두 珍島邑과 통혼하였다. 이는, 珍島邑이 經濟的·政治的 意味에서 만이 아니라, 社會的 側面에서도 핵심이 됨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는 珍島의 일반인들의 통혼관계로서 珍島의 단골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珍島의 단골은 이웃마을에서 통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珍島邑이 일반인들에 있어서 通婚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단골의 경우에도 조사의 미비점이 있기는 하지만 珍島郡 內에서는 珍島邑과의 관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7) 朱京植, 1986, “不完全開放地域의 地域構造에 關한 試論 : 珍島의 경우”, 地理學 第34號, 大韓地理學會, pp. 14~29.

#### 4). 통혼과 단골판과 關係

全南地方의 단골의 巫系는 姑婦傳承型이다. 단골이라는 사회적 조건 (賤民階級の 一部類)은 父子關係로 발생하는 것이며 姑婦關係는 결혼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學習關係 내지는 시집살이 관계인 것이다.<sup>58)</sup>

<그림 7>는 단골의 巫系繼承을 나타낸 것으로 단골 巫系가 父系繼承의 垂直構造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단골판을 포함한 일체의 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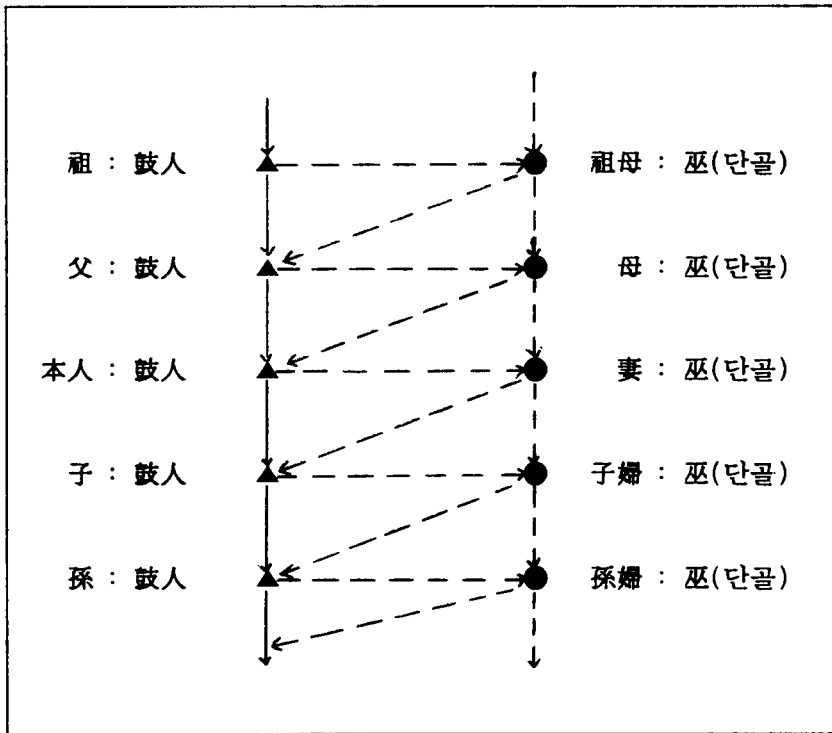


그림 7. 단골 巫系의 繼承構造

자료 :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p.271에서 인용.

58) 崔吉城, 1969, “巫系傳承考 -全南 당골을 中心으로-”, 韓國民俗學 創刊號, 民俗學會, pp.109.



權限이 父系를 따라 상속되고, 여자는 그 巫 권한의 상속자인 남자와 결혼하므로서 夫婦關係에 의해 巫 권한을 伴行(同行) 내지 代行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가 夫婦關係에 의해 무 권한을 남편과 함께 행사하되 巫業을 그만 둘 때는 반드시 그 巫 권한이 父系를 따라 아들에게 다시 引繼되어 이와 같은 관계가 父系를 따라 순환되기 때문이다.<sup>59)</sup>

현재 珍島의 단골이 巫業을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 결혼에 의하여 형성된 판 중 남자의 판을 相續한 것이 대부분이나 몇몇의 단골판은 이와는 반대로 형성된 판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단골가의 장남에게 시집가서 판을 상속받은 경우와 판의 領域이 넓어 여러 자식들에게 판을 나누어 주는 경우이다. 후자는 가난한 단골의 자식으로 태어나 판을 상속받지 못하고 妻家에서 떼어준 판을 상속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다.

珍島의 17개의 판에서 父系繼承에 의한 것은 14개 판이고, 2개의 판은 妻家 살이를 한 후에 획득한 판이고, 나머지 1개의 판은 珍島 단골인 여자가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갔으나, 이혼 후에 珍島로 돌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판을 사서 유지하고 있다.

---

59) 金泰坤, 1975, 前掲書, p.210.

## 5. 結論

지금까지 珍島 단골의 단골판과 通婚圈을 살펴보았다. 珍島의 단골판과 通婚圈의 연구를 위해 現地調査와 面談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골의 分布와 단골판의 境界, 단골판의 規模, 단골판의 變貌를 기술하고, 通婚에 있어서 同系의 通婚圈, 非系의 通婚圈을 알아보고, 通婚에 있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通婚과 단골판과는 어떠한 聯關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珍島의 단골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는 종사자에 있어서 增減의 폭이 컸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감소의 원인은 단골이 천민이어서 後孫들이 천시를 벗어나기 위해 단골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화와 지식의 발달로 단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基督教 등의 전파와 巫俗을 迷信이라하여 배척하여 단골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珍島郡의 단골은 珍島邑에 7, 古郡面 3, 義新面 6, 臨淮面 2, 智山面 3, 鳥島面 1명이 분포하고 있다.
- 2) 珍島의 단골판은 珍島邑 4, 古郡面 2, 義新面 5, 臨淮面 2, 智山面 4개 등 17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珍島의 단골판은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단골집과의 관계는 姓氏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단골과 姓氏와의 관계가 專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姓氏라도 단골이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 3) 珍島의 단골판은 自然部落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단골판의 規模는 자연부락의 數, 단골판의 面積, 단골집의 數로 추정된다. 하나의 단골판에 속하는 자연부락은 적게는 3부락에서, 많게는 14부락으로 그 폭의 차가 크다. 단골판의 면적은 넓이가 아닌 距離로서 면적을 나타냈다. 距離는 단골의

집에서 가장 먼 단골집과의 거리로 나타내는데 가장 작은 면적은 직선거리로 약 2km의 범위를 갖는 珍島邑의 浦山里과 義新面 敦地里, 草四里의 판이고, 가장 먼 거리는 6km로 臨淮面 白洞의 판이다. 珍島 단골판의 평균 거리는 3.4km이다. 단골집의 가구수는 50여호에서 600여호까지로 평균가구수는 240여호이고, 가구당 도부량은 1-4되이나 많은 경우 2말까지 된다.

- 4) 珍島의 단골판은 단골들의 移動과 판의 賣買에 의하여 변모되어 가고 있다. 단골판의 변모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사회적으로 천민의 대우를 받아오다 서구사상이 유입되어 평등사상이 확산되자, 천민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근대화와 함께 촉진되어 도시로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巫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그 관심이 基督教을 비롯한 현대종교에 흡수되어 단골의 宗教的 基盤이 쇠퇴해져 단골의 종교사회적인 제도화가 균형을 잃게 되어 경제행위인 도부의 관행이 소멸되므로써 단골판이 크게 변모되었다. 珍島의 단골판은 1970년대 초까지 판을 賣買하거나 質貸를 하였다. 현재는 단골판에 대한 관심이 약해져서 판이 소멸되고 있다.
- 5) 珍島의 단골은 천민계급화 되어 사회생활에 있어 제약을 받았다. 婚姻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 60세 이상은 같은 巫系끼리 결혼을 하였다. 通婚은 지역사회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단골의 通婚圈을 보면, 珍島 단골의 접촉의 영역을 알 수 있다. 珍島의 단골은 珍島를 중심으로 하여 海南, 靈岩, 新安, 木浦와 通婚圈이 연결되고 있다. 특히 同系와의 통혼은 道路網, 市場圈, 行政圈과는 무관하게 단골간의 중매에 의하여 형성된다.
- 6) 1960년대 이후 단골의 通婚에 있어 非系와의 혼인이 나타나고 있다. 非系와의 通婚圈은 아주 넓게 형성된다. 이는 천민이라는 의식때문에 자기의 신분의 노출이 안되는 지역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다. 非系와의 通婚은 全南地方보다는 그 외 지역과 맺어지는데 서울, 釜山, 大邱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7) 珍島의 단골은 현재 60세 이상은 동관과 결혼하고, 그 다음세대는 동관과 非系와의 通婚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후의 세대는 동관이라는 體制 자체가 파괴되어 그 全員이 非系와 혼인관계를 맺을 것이다.
- 8) 珍島의 단골판은 結婚에 의하여 계승되는 姑婦傳承型이다. 판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판을 상속받는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妻家에서 떼어준 판을 관리하는 경우의 2유형이 있다. 珍島의 17개판 중 14개 판이 父系繼承에 의한 경우이고, 2개의 판은 妻家에서 얻은 판이고, 나머지 1개는 스스로 판을 사서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珍島의 단골의 단골판과 通婚圈에 관해 究明해 보았으나, 현지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巫俗研究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단골의 空間認識, 一般人과 단골의 通婚圈의 비교, 단골판과 市場圈, 行政圈과의 비교 등의 부분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金烈圭, 1974,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서울.
- 金榮振, 1973, “民俗地理學에 대하여 - 民俗學의 한 方法論 序說로 -, 韓國民俗學 6輯, 民俗學會, pp. 99~107.
- 金仁會, 1987,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서울.
- 金泰坤, 1975, “巫의 단골制 研究 : 湖南地域 巫俗研究 1”, 馬韓 · 百濟文化研究 창간호, 圓光大 馬韓 · 百濟文化研究所, 裡里. pp. 201~221.
- , 1981,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서울.
- , 1983,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서울.
- 盧道陽, 張保雄, 1976, “歷史 · 文化地理學”, 地理學 第13號, 大韓地理學會, p. 36~40.
- 朴桂弘, 1969, “巫가 中世社會에 끼친 影響”, 韓國民俗學 創刊號, 民俗學會, pp. 87~103
- , 1971, “近世 巫觀의 社會的 機能에 對하여”, 韓國民俗學 第4輯, 民俗學會, p. 1~26.
- 柳東植, 1975,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 出版部, 서울.
- 尹周炳, 1986, 종교심리학, 서광사, 서울.
- 이화숙, 1986, 韓國 農村通婚圈의 要因別 地域性 - 陝川 郡民을 事例로 -,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鄭勝謨, 1983, “通婚圈과 地域社會體系研究”, 韓國文化人類學 제15집, 韓國文化人類學會, pp. 219~268.
- 趙興胤, 1987, 한국의 기층문화 -한국무속의 세계와 성격-, 한길사, 서울.
- , 1990,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서울.
- 朱京植, 1986, “不完全開放地域의 地域構造에 關한 試論 : 珍島의 경우”, 地

- 理學 第34號, 大韓地理學會, pp.14~29.
- 崔吉城, 1969, “巫系傳承考 -全南 당골을 中心으로-”, 韓國民俗學 창간호, 民俗學會, pp.105~115.
- , 1978, 韓國巫俗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서울.
- 崔在律, 1975, “農村通婚圈의 性格과 變化 -鳩林里의 婚入을 中心으로-”, 湖南文化研究 제7집,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pp.31~60
- 黃纓詩, 1988, 韓國人의 굿과 무당, 文音社, 서울.
- 玄容駿,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1988, 珍島巫俗現地調査 -蔡氏姉妹를 中心으로-.
- 國立木浦大學博物館, 珍島郡의 文化遺蹟.
- Terry G. Jordan, Lester Rowntree, 1986, The Human Mosaic, Harper & Row.
- David E. Sopher, 1967, geography of religions,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 A Study on Spatial structures of Chindo tangol

Jo Jeong - Kyu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Bo - Wo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ange of control(*tangolp'an*) and intermarriage of *Tangol*(hereditary shaman) in Chindo province.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by the interviews in the field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hindo *Tangol* has had an add and reduce in Chindo since 1962, it had furnished data but it was reducing generally. The reasons why it was reducing are due to a social and an economic problems. Socially they have treated contemptuously. So that they wanted to break from it. *Tangol* receives payment from her followers in exchange for services. Furthermore , twice a year, in the spring and fall, the followers make payments of barley and unmilled rice respectively. This system is referred to as *tobu*. The economic reason is that they have been poorly off by the determination of a custom, it called *tobu*. So they moved to

urban.

2) Chindo *Tangolp'an* can be divided into 17 regions. there are 3 - 14 villages in the *tangolp'an*. The average distance cross *tangolp'ans* is about 3.4km. The number of households are 240 houses as average and the amount of each house's *tobu* is 1 - 4doe.

3) *Tangolp'an*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area of *p'an* is change by trade and *tangol's* moving.

4) *Tangol* is controled about marriage, because they were the low-class people. Naturally they married other *tangol*. The range of intermarriage with akin to them was made around Chindo where is the center. This type of intermarriage formed very largely.

5) The *tangol's* intermarriage with akin to them was the main current over 60 ages, the rate of the next generation is decreasing.